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0호  
2025년 03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2박3일 즐겁고 멋진 여행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 제34차 평의원회의가 오는 6월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사흘간 미네소타주 주도인 세인트폴(Saint Paul)에서 열린다.

미시시피강을 끼고 미니애폴리스와 트윈시티를 이루고 있는 세인트폴은 그림 같은 호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풍스런 도시로 제34차 평의원회의가 열리는 세인트폴 호텔은 다이아몬드 4개 등급의 세인트폴을 대표하는 유서깊은 최고급 호텔이다.

평의원회의는 미주동창회 최고 의결기구로 산하 27개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의 미주동창회 사업을 보고받고 향후 1년간 펼칠 사업과 주요 안건들을 토의한다.

특히 올해 제34차 평의원회의에서는 황효숙(사범대 65) 동문이 17대 이상강 회장(의대 70)으로부터 미주동창회기를 넘겨 받으며 18대 미주동창회장에 취임한다. 평의원회의가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것은 황효숙 차기회장이 미네소타 지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황효숙 차기회장은 이 자리에서 18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사업들과 함께 18대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의원회의에서는 2027년 7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할 19대 차차기 회장도 선출한다.

황효숙 차기회장은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 하시는데 극진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에 호텔도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일요일 골프치는 동문들을 위해 LPGA 토너먼트가 열리는 중서부에서 좋기로 유명한 러시 크릭(Rush Creek) 골프장도 멤버십을 가진 동문 도움으로 저렴하게 예약했다”며 “동문들께서 2박3일 즐겁고 멋진 여행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임원진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 크릭 골프장은 박세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 34차 평의원 회의  
6월 20일~22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서 개최

황효숙 차기회장 취임, 차차기 회장도 선출  
최고급 호텔에서 손님 맞이, 일반 동문도 환영

리 선수가 1999년 LPGA 경기에서 우승했던 곳이다.

황 차기회장은 또 “평의원은 아닐지라도 이번 기회에 미주 각 지역 동문들을 만나고 미네소타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만큼 일반 동문들의 방문도 환영한다”며 “세인트폴 호텔은 여름철에 300불 정도하는데 일찌감치 예약하면서 특별할인을 받아 1박에 164불+택스에 머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일 간의 평의원회의는 첫날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과 작은 클래식 음악회, 만찬 그리고 둘째날은 평의원회의, 음악회, 만찬, 마지막날은 친목 골프 등으로 진행된다.

### ■ 호텔 예약 방법

1. Visit the website at [www.saintpaulhotel.com](http://www.saintpaulhotel.com) & click RESERVATIONS
2. Enter Check-in dates June 20, Check-out dates June 21, and No. of Guests.
3. Drop down for Code Type and choose “Group/Block”
4. Enter the group code number 3596904 in CODE.
5. Click CHECK AVAILABILITY.
6. Choose a room type “Deluxe Rooms” and fill out the form and pay \$164.00 + tax.

### ■ 공항 교통편

세인트 폴 호텔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공항에서 각자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 ■ 문의: 황효숙 차기회장

(651) 308-0796/  
sook@nano-dyne.com  
박현아 차기사무총장 952-679-4267  
백옥자 총무국장 818-395-1967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mailto: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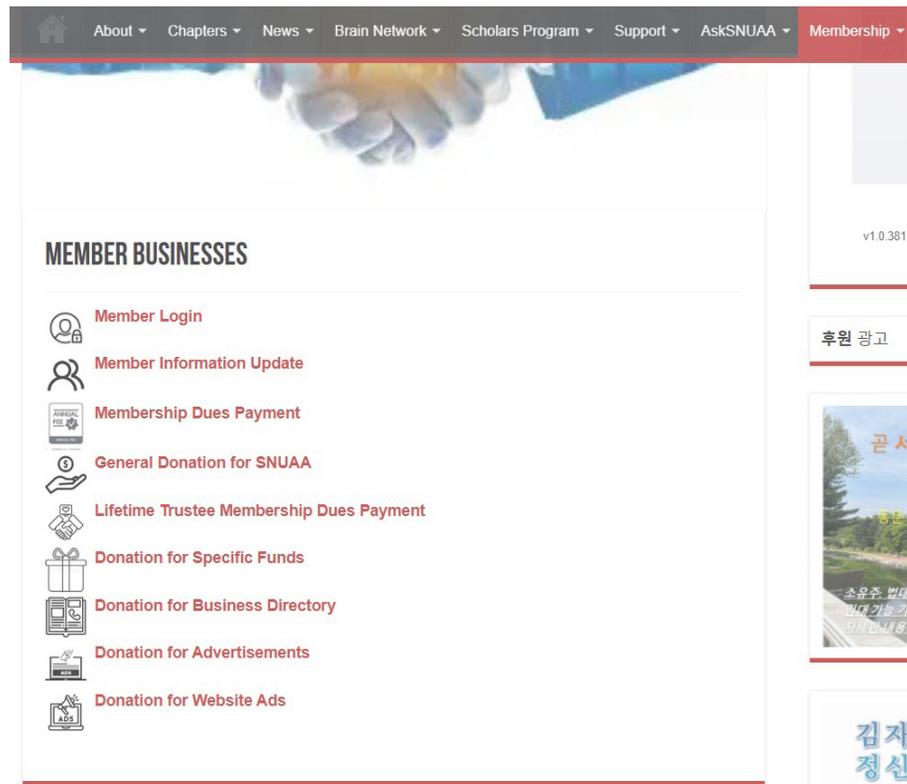
# “동창회비, 온라인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드디어 온라인 회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가칭 ‘스누시스’ (SNU Sys)로 명명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멤버십 전문업체인 네온(Neon)사의 솔루션을 채택해 동창회가 간단하고 명료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 완료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회비 납부가 온라인으로 매우 간편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미주 동창회보와 함께 배달된 납부 봉투에 수표를 반송했는데 이런 방식 이외에도 동창회 사이트(snuua.org)를 통해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연회비는 물론, 종신이사회비, 광고회비, 웹사이트 광고비용 등의 납부와 일반 및 특별 기부가 매우 용이해졌다. 동창회보를 직접 받지 못했던 동문들도 이제는 회비 납부가 쉬워졌다.

시스템 도입을 진두 지휘한 나용화(생과대 79) 동문은 “당초 예상했던 6개월의 구축 작업을 최근 마무리 지었다”면서 “3월초부터는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사인업, 로그인, 업데이트, 각종 회비 및 기부금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



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기존의 튼튼한 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축된 스누시스에는 미주동창회가 확보하고 있던 동문 회원 정보를 대부분 입력해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음에는 신규 가입 형식(sign up)으

로 member information update) 메뉴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기존 데이터와 병합해 가입이 마무리 된다. <사진 및 설명 참조> 이후 두번째 방문부터는 다른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로그인(member login)과 로그아웃이 되고 개

###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ua.org)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서울대 미주동창회’ 로고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 중 오른쪽에 3번째인 ‘Membership’ 탭에서 위에서 두번째인 ‘Member businesses’를 누르면 보인다. 진입 페이지 메뉴는 위에서부터 Member Login(로그인), Member Information Update(가입 및 정보 수정), Membership Dues Payment(회비), General Donation for SNUAA(일반 기부), Lifetime Trustee Membership Dues Payment(종신이사회비), Donation for Specific Funds(특별 기부), Donation for Advertisements(동창회보 광고), Donation for Website Ads(웹사이트 광고) 등이 마련돼 있다.

인 정보 업데이트도 가능해졌다.

미주 동창회는 향후 27개 지부도 스누시스를 이용해서 회원 관리와 회비 관리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분야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넘어서서 미주 동문들의 소통과 교류의 창(window)으로 자리 잡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련 사용법을 위해 간단한 동영상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 “종신이사 가입 ... 동창회 후원 감사합니다”

## 뉴욕 윤인숙(간호대 63) 동문, 새로 이름 올려 “은퇴한 후 동창회보 보고 여행 계획 세워요”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윤인숙(간호대 63)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에 올랐다.

윤 동문은 매달 배달되어 오는 동창회보가 노년의 한가지 낙이라면서 특히 “최근 동창회보가 이전보다 달라졌다. 좀 더 자세해진 것 같다”면서 “은퇴 후에 여행을 갖는 동문들의 여행기 기사가 많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창회보를 통해서 동문들의 활약상, 성공담, 통찰을 엿볼 수 있어서 일반 신문과는 다른 만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주동창회보는 동문들이 보내주는 동창회비, 후원금 그리고 종신이사 가입비의 3분의1을 운영자금으로 제작되고 있다.

윤 동문은 1969년 미국에 가족 초청 이

민으로 왔다. 가족 중 맏으로 맏으로 21세가 넘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지 못하고 1년 좀 지나서 합류했다. 한국에서 혼자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미국에 와서는 컬럼비아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윤 동문은 미혼으로 남동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대학원 졸업 후 지난 1월초까지 현역으로 일했다. 1월11일에 종합병원 디렉터로 은퇴했다.

윤 동문은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에는 30년에 한번 꼴로 방문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일가 친척도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행 항공편 시간이



윤인숙 동문이 지난 1월11일 은퇴 행사를 마치고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다.

너무 길어서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 미주동창회 19대 회장 인선 난항

## 출마 의사 후보 아직 없어 각 지부서 후보 추천 당부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정관에 따라 미주동창회를 이끌 새 회장을 2년 전 미리 선출한다. 따라서 오는 6월 20일~22

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제34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202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19대 차차기 회장을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미주동창회장은 현 회장(하틀랜드), 직전 회장(남가주), 차기 회장(미네소타)을 배출한 지역을 제외하고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다.

19대 회장 인선위원장인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은 “현재까지는 워싱턴DC

지부에서 동창회장을 역임한 정평희(공대 71), 박상근(법대 75) 동문을 회장으로 천거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지부 동창회장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후보를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카고 지부는 조규승 전 회장과 정성일 회장이 지역 동문들에게 후보 추천을 받아 19대 회장 후보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천자 모두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남가주 총동창회 50년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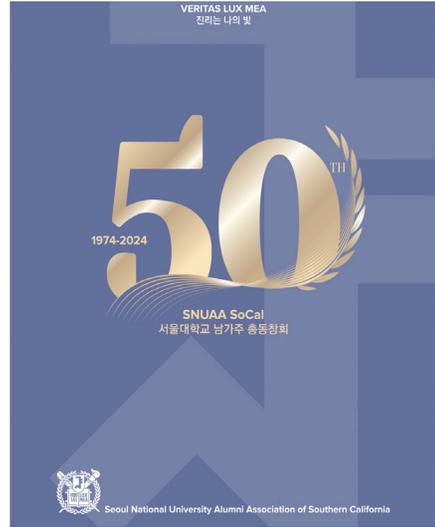
주요 행사·인터뷰 등 포함  
원하는 동문에게 우편 배달

남가주 총동창회가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담은 50년사(골드북·사진)를 발간했다. 지난 1월 15일 임춘택 회장 재임시절 발간된 50년사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430여 쪽에 달한다.

제 1장은 1960년대말의 배구대회 우승을 비롯해 코리아타운 퍼레이드, JP 김종필 동문 방문, LA 폭동, 할리웃 보울 가족의 밤 등 지난 50년을 화보로 꾸몄다. 이어 15개 단과대학(대학원 포함) 현황, '오적시인' 김지하 방문, 커뮤니티 봉사, 동문가족 캠핑, 원로선배 초청 오찬, 송년대잔치 등 지난 50년의 주요 행사들을 소개했다.

1975년 이후 관악캠퍼스에서 수학한 이른바 '관악세대'의 활동도 사진과 함께 실었다. 관악세대의 온라인 매체인 '아크로폴리스타임스'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 동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이라이트는 서울대 인물 50년사. 학계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활약한 동문들을 소개했다. 벤자민 흥 은행장을 포함해 우주공학자 정재훈 박사, 하기환 LA 한인회장, 코리아타운 퍼레이드



의 김진형 동문, 사회학자 유의영 교수, 북창동 순두부의 이태로 회장, 김동석 전 UCLA 국악과 교수 등 한인 사회를 빛낸 동문들이 지면을 메웠다. 관악논단에는 이채진 교수의 남북대립과 중국의 역할, 한홍택 UCLA 석좌교수의 테슬라 진단, 김미란 교수의 K-컬처 등 다양한 논문이 게재됐다. 타계한 동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웃도어 라이프, 포토 에세이 등이 실렸다.

50년사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소정의 후원금을 내면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다. ▲문의: 이호진(818-321-2214)

# 남가주 총동창회 LA산불 피해 주민 돕는다 매트리스 1000개·의류 등 제공



남가주 총동창회의 채규황(왼쪽에서 두번째) 회장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제공될 매트리스 등 구호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 법대 69)가 최근 LA를 휩쓴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트리스 1,000개를 지원했다.

동창회는 지난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영리 구호단체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주거 및 환경 정의(AAHEJ, 대표 박지영)를 통해 매트리스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동창회는 이외에도 캔푸드, 스낵, 생수 및 음료, 새니타이저, 의류 등도 제공한다. 그랜드라이프(대표 오승우)의 지원으로 마련된 매트리스는 트윈과 싱글, 캣 등 세 종류다.

채규황 회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인 피해가 집중된 '이튼' 산불지역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AAHEJ와 협력해 구호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AHEJ는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홈리스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튼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 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

채 회장은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가 산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 쉼터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이 매트리스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동창회 차원에서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한인 이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AI시대 시장 진입 전략' 윤은상 동문 첫 저서 출간

기업 신상품 예로 들며  
성공적인 타이밍 설명

윤은상(상대 66) 동문이 최근 첫 번째 저서인 '인공 지능 시대의 시장 진입 전략: 선발과 후발(Market Entry Strategy In The AI Era: Pioneering vs following(표지))'을 출간했다.

매사추세츠 주립 로웰캠퍼스(UMass Lowell)의 매닝경영대학원 소속 '마케팅 창업 및 혁신학과' 은퇴 교수인 윤 동문은 "대학 교재는 여러 번 출간했지만 저서로는 처음"이라며 "실물 경제에서 타이밍(tim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신상품 진입 전략이 마치 마라톤 경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앞서거나 뒤서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생 연구한 진입 전략을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오랜 역사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한국 선수도 3번이나 우승했다. 첫 번째 우승은 1947년, 서윤복 선수가 초반에는 2진 그룹에 있었으나, 중반 이후 선두 그룹으로 뛰어 들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 골에 들어왔다. 두 번째는 1950년, 함기용 선수가 중반

까지 선두 그룹에서 달리다가 관중 속에서 튀어나온 개에게 다리를 물려 후진 그룹으로 뒤쳐졌다가 다시 힘을 내어 선두 그룹을 추월하고 우승했다. 세 번째는 2001년,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전 구간을 선두 그룹에서 줄곧 페이스를 유지한 후,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런 3가지 경우는 우승을 향한 다양한 경쟁 구도로 기록되고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 신상품 개발 경쟁도와 유사하다. 선두 기업으로 크게 성공한 애플 같은 경우도 있고, 후발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으로 선두 기업을 추월하며 크게 성공한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상품 경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경쟁 기업의 지능과 시장 정보가 모든 기업에게 노출되고 언제 어디서나 순간적으로 입수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윤 동문은 이 책에서 최근에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



윤은상(오른쪽) 동문과 부인 박순혜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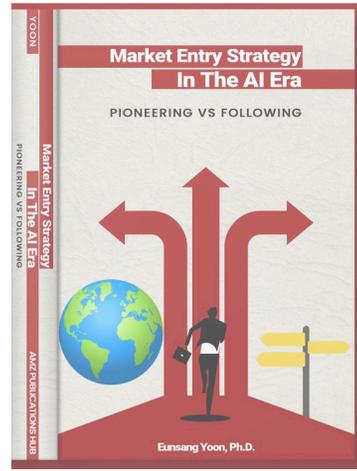
된 선두 기업의 신상품 4가지 케이스와 후발 기업의 신상품 4가지 케이스를 인공 지능의 산물로 소개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GPT, 신기술 HIV 치료제, AI 장착 안경, 의료용 AI 프로그램 등이 선두 신상품의 실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G700 항공기, 히타치 가상세계(Metaverse), 이스즈 전기차 등이 후발 신상품의 실례이다.

윤 동문은 이번 저서를 통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타이밍을 적용해서 진입 타이밍 측정, 개척과 추종 간의 장단점, 장기 시장 리더십에 대한 진입 타이밍의 영향, 진입 타이밍과 관련된 성공 요인 및 기타 관련 문제 및 우려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업의 헌신, 정부 개입, 사회적 활동주의 및 AI와 IT의 발전과 관련된 소비자 선호도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혁신의 결정 요인에 대한 상호 작용 모델, 혁신 프로세스의 진화 및 진입 타이밍에 대한 전략적 의미와 같은 지속 가능성 관련 타이밍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윤 동문은 현재 한국어판도 출간 준비 중에 있다.

윤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1970년에 졸업하고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MBA(1980)를, 펜실베이니아 주립 스테이트칼리지 캠퍼스에서 경영학 박사(마케팅 및 경영과학)를 받았다. 윤 동문은 서울대 동문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뉴잉글랜드 지부장도 역임한 바 있다. 보스턴 지역은 특히 바이오테크 관련 동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AI시대를 맞아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 “세상에 진 빛, 봉사와 기부로 갚고 있어요”

**시애틀 코너스톤 무료 클리닉 이명자(간호대 74) 대표**

74) 동문이 대표를 맡아 최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자 동문에게 5항목의 질문을 보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시애틀 서울대 동문들의 자량이 비영리단체인 코너스톤 무료 클리닉이다. 이명자(간호대

## -본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달라.

서울 고려병원(현 삼성 강북병원)에서 1년간 간호사로 근무하고 79년 형제 초청으로 당시 약혼자인 남편과 오리건으로 이민 와 RN으로 근무하면서 프리메드(Pre-Med)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저는 85년에 오리건 주립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1992년부터 프로비던스 병원 내과 그룹에서 일했는데 변호사를 하던 남편이 40세가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 1995년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주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정신없이 보낸 세월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의대 3학년때 저희를 도우려 오신 친정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알래스카 원주민 병원에서 주치의로 일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제3국 같은 곳에서의 의사 생활이 보람 있었고 가끔은 경비행기를 타고 오지에 가서 진료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알래스카에서 8년반을 살면서 두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우리의 생활은 직장, 비즈니스, 집, 교회가 모두 10~15분 운전 거리 내에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Firsttech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자동차 원격시동기를 디자인하고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판매했는데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아이들이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 2003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시



이명자 동문과 남편인 이제선 Firstech 대표.

## 무보험 저소득층 환자 진료 봉사 10여년 시애틀 한글학교 · 심포니 등서 이사 맡아

애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곧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서 주치의로 일을 시작해 20년을 근무하고 2022년 팬데믹 중에 66세가 되어 은퇴했습니다.

2023년에는 10년간 자원 봉사하던 코너스톤 무료 진료실에서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오리건은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미국에서 전문직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제2의 고향이고 알래스카는 가정과 사업을 일으키는 발판이었고 지난 20여년 간의 워싱턴주에서의 생활은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코너스톤 무료 진료실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코너스톤은 무보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실로 서울대 동창인 두분의 의사(신창범 법대73, 변재준 의대78)가 주축이 되고 워싱턴주 동창회의 후원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 코너스톤 메디컬 서비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고 그 후 여러 변화를 거치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봉사자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다가 2022년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의 무보험자를 위한 응급 지원 그랜트를 신청했는데 10만달러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스태프를 고용하고 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치료 무료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의 90%는 그랜트, 10%는 개인이나 교회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점은 의료인 봉사자가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인데 헌신적인 이사진과 의료인들의 봉사로 한달에 4~5번을 시애틀 인근 두 장소에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과, 가정의, 재활의, 한의과, 치과와 간호사 총 30여 명의 의료인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창립 멤버인 변재준(의대78)과 황현숙(간호대 78) 동문은 이사이며 봉사자로 송은주(간호대85) 동문도 간호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인이 자신의 직장이나 프랙티스를 갖고도 한 두달에 한번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 지원을 받아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작년 말에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6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Youth strength finder라는 주제로 올해 초부터 신청을 받아 봄과 여름 캠프 및 가을 발표회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노인 건강을 위한 세미나와 특히 수면과 정신 건강의 연결을 모니터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그랜트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 워싱턴 지부장으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서울대 동창회 워싱턴 지부장을 지난 2020-2022년까지 3년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지부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에서 학업이나 다른 활동에 탁월한 학생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할 점은 지역 주립대학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매년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2명씩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는 고향 동무, 형님, 언니, 아우처럼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분들이 많아 배우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 마지막 질문은 이 동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빛진 자들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자라며 대한민국에, 성장하여 이민 와서 가정을 갖고 자유와 꿈을 이루도록 가능케 한 미국에게 크나큰 빛을 쬐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코너스톤 무료 클리닉을 포함하여 시애틀 한글학교, 기독 유치원/초등학교, 시애틀 한인 음악회, 시애틀 심포니, 형제 교회, GMMA의료선교, Kingdom Planet 선교 단체 등에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한 의대, 법대 또 고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믿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이명자 동문은 지난 2월 8일 열린 워싱턴주 동창회 신년 하례식 때 동문들을 집으로 초청해 떡만두국, 생선회, 초밥 등 음식을 대접했다. 이명자 동문의 부군인 이제선 Firstech 대표는 이 동문의 동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문들이 모여 즐거운 웃음을 하고 있다.

# 평양과기대는 교육을 통한 선교의 성공사례

## 박찬모(공대 화공과 54) 박사의 '북한 선교' 특강

박찬모 박사(공대 화공과 54)는 2010년부터 평양과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및 명예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립대, D.C. 카톨릭대, KAIST, 포항공대 등에서 가르치며 평생을 과학기술 교육계에 몸담았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포항공대 총장,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과학기술 특보를 역임했으며, 청조근정훈장(2005년)을 비롯해 국민훈장 동백장(1986년), 도산교육상(2018년) 등을 받았다. 지난 2월 13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포 토맥 포럼에서 박찬모 박사가 한 '북한에서의 선교' 특강을 정리했다.

### 평양과기대의 지속성

한반도의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은 어렵지만 교육을 통한 간접적 선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평양과학기술대학(PUST)은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초 남북 관계의 급격한 악화로 대학의 존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한국 내 후원회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후원 조직이 제3국으로 이전되었다.

올해 설에는 북한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이메일로 신년 카드를 보냈다. 이 기관은 미국 내 한인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안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아직도 해외 동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외교관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과기대(PUST) 교수진 20여명이 비자를 받아 유럽, 중국 등지에 입국해 가을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정세 속에서 외국인 교육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내 기독교 현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곳, 성당 한 곳, 러시아 정교 사원이 존재한다. 러시아 정교 사원은 특별한 행사 시에만 개방된다.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지하교회 신도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 생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평양과기대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 유엔 기구, EU 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의 근무자와 가족들은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자주 만난다. 교회 외에는 주로 가라오케 노래방에서 만난다. 외국인이 가는 노래방에는 대부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고 금강산호텔 노래방에는 12개의 찬송가도 있었다. 안내원들도 찬



김일성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 묘를 방문한 박찬모 박사. 어머니 강반석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 김형직은 기독교 학교인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계열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 북한 유일의 기독교 기반 사립 국제 대학 외국 교수가 영어로 컴퓨터·의학 등 강의 기독교인 사랑·헌신 보며 신앙 받아들여

송가인 줄 알면서 영어로 함께 부른다. 세계적 기독교 단체인 World Council of Churches, Christian Friends of Korea, Eugene Bell Foundation 등이 평양을 방문하면 언제나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 평양과기대의 사명과 비전

평양과기대(PUST)는 북한 유일의 기독교 기반 사립 국제 대학이며 2001년 남북한 정부의 승인을 받고 2009년 9월 준공식을 했다. 2010년 10월 신입생 입학과 더불어 영어교육을 시작했다. 2011년 3월에는 대학원생 전공과목 교육을 시작했다. 모든 과목은 외국 국적의 교수가 영어로 강의한다. 학부는 ECE(전자컴퓨터공학), ALS(농생명과학), IFM(국제금융학 및 경영학), 의학부(치과, 의과, 보건, 약학, 간호)가 있다. PUST는 산학 협력과 국제 학술대회, 해외파견 등을 통해 학생의 국제화에 전념한다.

PUST 교직원 사역은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 교육으로 북한의 국제화를 선도하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증진함에 있다. 남북의 과학기술 격

차 감소로 통일 후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지식의 산업화로 북한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문 지식과 더불어 인성 교육도 강조한다.

사명 완수를 위해 사랑과 기도, 봉사, 희생(무보수 봉사), 화해와 이해의 노력, 기독교에 입각한 과학외교의 적용, 지식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미국, 캐나다 등 서방세계와의 공조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헌신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의 사랑과 헌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과 북한 직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평양과기대의 비전은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 국제 대학(A Global University beyond Imagination)'이다. 처음 인가할 당시 북한 측 총장은 '포항공대와 같은 대학으로 만들자'고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입학하는 학부생이 100명에서 550명으로 늘었고 대학원생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박사과정은 9명으로 늘었다. 교직원 수도 처음 20명에서 시작했지만 126명으로 확대되었고, 처음에는 주로 교포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외국인

교수와 젊은층 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험 기기나 도서관, 전자도서 등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고, 인터넷도 처음에는 Proxy server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LAN 혹은 Wifi를 통해 직접 연결해서 쓴다. 북한에서는 PUST 학생만이 국제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대학 학생은 국내망(Intranet)만 쓰고 있다.

평양과기대 직원들의 신앙생활은 구내에서 매일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가 있고 가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 교과 내용과 학술 활동

평양과기대는 국제 학술대회를 2011년, 2013년, 2015년, 2019년 했다. 대학원생들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스위스 쥘리히 응용과학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 중국 농업과학원 등으로 유학보냈고, 유학을 못 가는 경우에는 중국에 견학 방문을 보냈다.

대학원에서의 가상현실 수업시간에는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 실제로 있는 루트 66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힙합댄서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다.

코비드로 국경이 봉쇄되었을 때는 스카이프가 한 몫을 했다. 외국에 있는 교수들의 원격 강의, 논문 심사, 박사과정 지도 등이 스카이프를 이뤄졌다.

### 평양과기대의 비전

교육을 통한 선교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남북한의 원활한 교육 선교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평양과기대(PUST)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간다면 북한 내 기독교 신앙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에서 선교의 길은 여전히 좁고 험난하지만,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전달하고 장기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리= 한정희<편집의원, 미대81>



평양과기대(PUST)의 모습.



평양과기대 1회 입학 남학생들.



평양과기대 직원들의 주일 예배 모습.

# “잠 잘 자고 함께 어울려 노래도 자주 부르세요”

##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의 치매 예방 이렇게

을 전수하고 있다. 김 동문은 텍사스 MD앤더슨 암센터, UC어바인 의료원 방사선과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WCU분자의 학교수다. 그가 최근 강연한 치매에 대한 통찰과 정보를 소개한다.

김의신(의대 66 졸업) 동문은 세계적 권위의 암 전문의이자 핵의학자로 현재는 건강 비법

### ◆ 치매 환자의 2가지 특징

첫째, 외로움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노인이 돼서 80~90세에 혼자 된 사람은 친구가 없다. 그 외로움 속에 살다가 치매가 된다. 본인이 생각해서 치매에 걸리기 쉽다면 자기 취미에 맞는 클럽에 조인해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면 훨씬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둘째, 유전자 문제다. DNA중 ApoE4라는 것이 치매를 일으키고 반대로 ApoE2는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로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ApoE4가 많던지 ApoE2가 적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꼭 유전자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치매 연구로 유명한 사람 중에 오리건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피검사에서 나쁜 유전자가 나왔다. ApoE4인데 그는 지난 10년 동안 1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손자 손녀들하고 시간을 보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멀쩡하다.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력, 좋은 생활 습관을 자기가 만든 것이다. 손자 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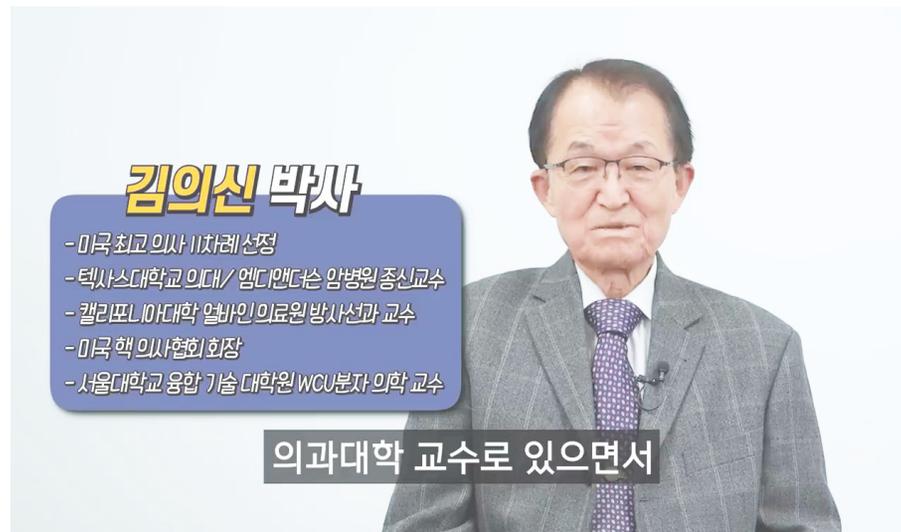
### ◆ 치매에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느냐를 조사해 보니 음악가들, 특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걸리지 않았다. 노래를 하면 목부터 꽤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흡수해서 전신의 세포 기관의 기능을 아주 왕성해지고 가사를 즐기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몸에 좋다는 호르몬인 엔돌핀도 나오지만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또한 코티솔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훨씬 덜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노래를 하면 뇌에 중추 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영어로는 베이거스너브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미주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 미주 신경은 위장을 조정하는 신경이므로 이것 덕분에 소화도 훨씬 잘 된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는 것, 그 노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오래 산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하다.

### ◆ 치매 폭증시키는 원인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고 있다.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치매도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성 염증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입 안에 균이 500개 있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모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는 잇몸에 여러



## 유전자 있어도 생활 좋으면 안 걸려 입안 염증 특히 위험, 구강건강 지켜야 활성산소 억제하는 블루베리 큰 도움

가지 염증이 생겨서 구강의 건강을 망가뜨린다. 입에 염증이 있으면 옛날부터 아주 위험하다고 그랬다.

원래 뇌 자체는 특별한 막으로 싸여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주사나 어떤 약이 뇌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입에 염증이 있으면 코를 통해 뇌막으로 균이 침입한다.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다.

평소에 침 안에는 여러 가지 효소도 있지만 나쁜 균과 좋은 균을 서로 균형을 맞추게 하는 액체들이 있다. 그런데 입이 말라서 늘어갈수록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많다. 식도와 위장은 괄약근이 조절하게 돼 있는데 힘이 약해져서 누워 있으면 위산이 많은 사람은 거꾸로 올라와서 혀 바닥까지 하얗게 만든다. 그런 사람은 입이 말라서 좋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씻어내야 한다. 치약보다 시간마다 자주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것이 구강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따라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가글은 물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화학약품을 섞어서 하면 좋은 균이 많이 죽을 수가 있다. 나쁜 균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약품에 잘 죽지 않고 좋은 균들이 약해서 죽으니까 차라리 물로 자주 씻어내는 것이 좋다.

### ◆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

모든 병의 기본은 활성 산소의 문제다. 활성 산소가 많이 생겨서 유전자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활성 산소를 억제하

는 음식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가장 흔한 것이 블루베리, 레드베리다. 이 베리라는 과일 안에 수소가 많다. 활성 산소는 안정된 O2가 깨져 O가 하나로 뿔을 때 불안정한 산소다. 그래서 여기에 H2를 섞으면 H2O, 즉 물이 되므로 베리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매우 많이 먹어야 된다. 100개 이상 먹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제약 회사에서 농축시켜서 알약이나 주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먹고 마시면 된다.

또한 견과류, 시나몬 이런 것도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올리브 오일, 건강 식사에 필요한 식물성 오일, 생선을 위주로 한 단백질 음식 등이 모두 뇌 건강에 좋다. 그리고 비타민 B3라는 것이 뇌 세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비타민은 우리 신체에 50가지 필요한데 몸에서 만들지 않으니 따로 먹는 것보다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으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피검사를 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모자란 것은 더 먹으면 더 먹으면 좋다.

### ◆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잠

치매에 잘 걸리는 이유로 꼽히는 것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다. 뇌세포가 일을 열심히 한 뒤에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것을 아밀로이드라고 한다. 이것이 세포 사이에 끼어 있다가 빠져 나가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세포가 기능을 계속하니 세포 사이 간격이 좁아져 빠져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을 자면 세포가 쪼그라 들어가지고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져서 이게 쉽게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잠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깊은 잠이 REM수면이다.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라고 잠 잘 때 눈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이때 깊은 잠을 잔다.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수면제는 렘 수면은 불가능하다. 또 수면제가 부작용이 많다. 중독성이 있고 일시적인 효과 뿐이다. 최근까지 나온 약품 모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수면제 대신 피곤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피곤하면 반드시 쉬게 돼 있다. 육체적인 운동을 하면 몸이 피로하게 돼 있다. 그렇다고 대단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1시간 정도 집 주위를 걸으면 좋다. 운동한 날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저녁을 먹고 조금 있으면 그냥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다음에 42도 물에 들어가서 5분만 있으면 몸이 노곤해진다. 누구든지 섭씨 42도에서 43도로 우리 몸을 만들면 모든 병균이 자라지 못한다. 우리 몸은 36.5도인데 1도만 높여줘도 면역 세포가 크게 증가한다.

따뜻하게 하면 굉장히 좋다. 혈류를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뇌에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햇빛, 불빛, 소리가 들리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잠을 잘 때는 컴컴한 방에서 소리를 일체 끄고 누어야 잠들 수 있다. 잠을 오래 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4~6시간을 깊이 자면 된다. 나이 든 사람은 두세 시간마다 전립선 때문에 깨서 일어나 소변을 보면 그만큼 물이 빠져 나가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

### ◆ 치매 환자가족에 대한 조언

흔히 치매 환자들은 정신병 쪽으로 점점 진행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기적적인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 죽고 싶다고 하는데도 죽지 않는다. 치료를 중단하면 금세 죽을 것처럼 해서 방지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서둘러서 판단을 하면 절대 안된다.

암, 치매 이런 불치병을 다룰 때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그야말로 사랑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다음달에는 암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 투병 탓에 좋은 작품? 환자는 항상 불행했다

SNU포럼 2월 강연 지상중계

조중행 박사의 '질병과 예술적 창의성'

의학박사인 조중행(의대63) 동문이 '질병과 예술적 창의성(Disease, Creativity and Art)'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인류는 출생, 성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아왔다.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질병의 고통을 겪었다.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한국 또는 외국의 예술가 중에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돌아본다. 조중행 박사는 한국과 미국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조중행  
(의대 63)

모든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자라온 배경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질병도 작품 형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리다 칼로의 '브로큰 칼럼' 하나만 봐도 이 여자가 겪은 치명적인 질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체계적으로 리서치할 수 없었지만 정신과, 심리학, 신경과 등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 **프로소파그노시아(prosopagnosia)**라는 병이 있다. '페이셜 블라인드'로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질병이다.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악, 제인 구달이 이 병을 갖고 있다.

척 클로스(Chuck Close)라는 미술가가 페이스 블라인드니스 질환이 있어서 원래는 추상화를 전공하다가 예일 대학원 과정에서 중세 인쇄 기술, 성서 그림을 갖고 인쇄 기술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보는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부터 미술 작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대형 초상화, 몇 미터 짜리 초상화를 컴퓨터와 사진을 이용해 점묘와 식의 테크닉을 써서 작품 활동을 했다. 80년대 후반에 척추 동맥이 터져 사지마비가 된다. 그래서 결국 붓을 손에 묶어서 그림 작업을 했다. 후기 작품들, 오바마 초상, 빌 클린턴의 초상은 사지마비 상태에서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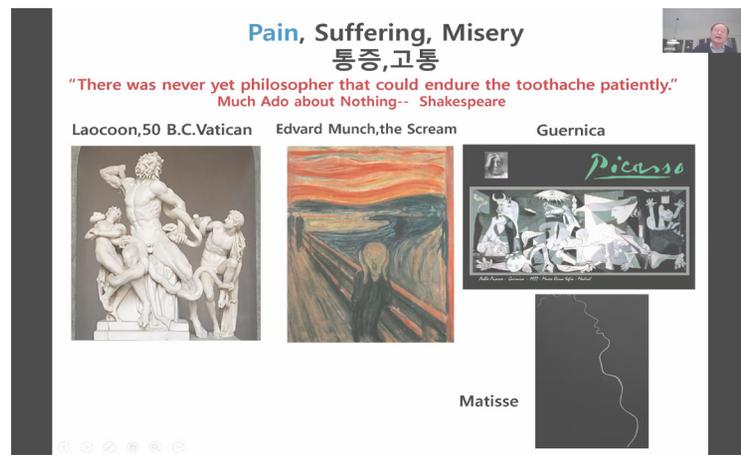
정신적인 공포를 그린 몽크(Edvard Munch)의 스크림(Scream), 스페인 내전 시 학살에 대한 피카소의 게르니카,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그린 마티스의 작품 등이 모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The Broken Brain은 주로 미국 예술가들의 질병을 다루는 책이다. 정신과 의사인 낸시 앤드리스(아이오와 정신과 주임교수)가 썼는데 르네상스의 영문학, 성공회 주교이며 시인인 존 던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특히 문필가들의 정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 헤밍웨이, 테네스 윌리엄스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결론은 많은 문필가들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창작성은 도파민의 양이 뇌에 어느 분야에 많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적으면 자살에 이르고 상당히 많으면 창작의 의욕이 넘치고 너무 많으면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음악적인 창작을 할 때 베퍼 창작, 비주얼 창작이 부분과 양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임상적으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병이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병의 기전이 뇌에 있는 도파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파킨슨 치료의 기본 요법이다. 그래서 도파민의 전구체인 엘도파(L-dopa)를 약으로 쓴다. 이때 환자들의 창작의 능력과 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신경과에서 관찰해서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입원 환자에게 창작을 시키니까 미술 작품의 질과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온다.

법으로 그램 그린(Graham Greene) 같은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글을 쓴 이는 시인 한하운(1920-1975)이 있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은 문동에 갔더라." 요즘은 문동병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한센병 관련한 시들이 많이 있다. 전남대 혹은 전북대 수의학과 출신이고 북경 대학에 가서 수의 축산학을 공부했는데 이 병 때문에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

▶ **건선(psoriasis)**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 미국 소설가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 하나인 업다이크(John Updike)가 유명한 환자다. 증세가 심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비듬이 그냥 비로 쓸어낼 만큼 실내에 쌓였다. 그래서 그의 투병기가 피부과 저널이나 논문에도 많이 나온다.



## 사지마비로 붓을 손에 묶어 그림 그린 척 클로스 수술 받고 실명한 헨델, 오라토리오 '삼손' 작곡

▶ **선천성 질환을 보면**, 드툴루 루트라(De Toulouse Lautrec, 1864-1901)라는 화가가 있다. 재주가 많았지만 귀족 간의 근친상간으로 출생했다. 키도 작고 골절도 많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심리적으로는 열등감이 있었다. 알코올과 여자 문제 관계가 있는 등 매독에 걸려서 40세도 안돼 죽었다.

작곡가 파가니니도 엘러스다로스(Ehler-Danlos Syndrome)이라는 선천성 질환으로 신체 조직을 지탱해 주는 연결 조직이 선천적으로 약했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관절 같은 것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길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더 많이 구부러질 수 있어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장점이었다.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작곡한 작품이 굉장히 연주하기 힘든 그런 작품을 많이 썼다.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일종의 치료 방

최근 또 다른 예로 화가 폴 클리(Paul Klee)가 있다. 그는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경화증(Scleroderma)으로 관절염도 오고 피부가 굳어지고 몸 속 조직, 식도 같은 것이 딱딱해져 먹을 수조차 없게 됐다. 상당히 비참한 질병인데 폴 클리가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 그는 죽음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내렸는데 특히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전문 연구자들은 예술가의 마지막 투쟁이라고, 질병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투병기는 한국의 마중기 시인이거나 탄 둔이라는 작곡가의 작품에도 영감을 주었다.

비슷한 질병이 ▶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이것을 심하게 앓은 사람이 로고스 루노아(Renoir)다. 이 사람은 붕대를 감고 붓을 들어서 말년의 그림을 그렸다. 이 과정을 본 마티스가 일종의 순교와 같은 과정이라고 글을 썼을 정도다.

▶ **안과 질병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클라우드 모네(1840-1926)의 백내장이다. 모네가 늙을 때까지 백내장을 앓았는데 작품에는 그의 시력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밀리파드를 그린 그림과 장레장전에 그렸던 그림에 보면 그의 시력 변화를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화가인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는 망막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드가는 말년에 그림보다는 조각에 많이 작품을 남겼는데 아마도 안과 질환이 조각에 치중하게 된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안과 질환으로 고통 받은 사람 중 중요 인물이 '음악의 어머니' 헨델(G. Frederick Handel, 1685-1759)이다. 카우팅 수술이 백내장 수술의 초기 수술이다. 백내장은 렌즈가 혼탁해지는 건데 당시에 렌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었다. 이 수술을 받으면 실명하게 된다. 헨델은 그래서 실명하고 그 과정에서 쓴 작품이 오라토리오 삼손(Samson)이다. 달라일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갖고 도망가고 눈을 뽑히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온갖 질병의 만물상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헨리 마티스(1869-1954)이다. 장염으로 고생했고 기관지염 때문에 남서프랑스에서 오래 살았다. 나이 먹어서는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 색전증까지 또한 담석증을 앓았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 간호사를 구했는데 오랫동안 신세를 졌다. 나중에 간호사는 수녀가 된다. 그는 자신이 돌봤던 마티스에게 부탁해서 성당을 짓는데 도움을 받는다. 마티스가 설계와 장식을 맡은 성당이 채플 오브 로사리(Chapel of Rosary)다.

이제 빼놓지 않을 수 없는 질병이 바로 ▶ **결핵**이다. 불치의 병과 같은 결핵은 수많은 문필가, 예술가, 배우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결핵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한 예술 작품에 흔적을 남겼다. 쇼팽, 비비안 리 같은 경우는 각혈하다가 숨이 막혀 죽었고 이광수, 백인재 교수가 신장 결핵으로, 이상, 안톤 체호프도 의사지만 결핵으로 DH로렌스도 결핵으로 고생했다.

건강이라는 것이 예술가의 생애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실례로 같은 해에 태어난 이중섭과 유영국의 생애를 꼽을 수 있다. 유영국은 말년인 80세가 훨씬 넘어서까지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즐기며 수많은 작품을 남긴 반면에 건강 문제로 일찌감치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족을 일본에 두고 죽은 이중섭의 생애를 보면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정리 = 장병희 편집위원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모교 교가를 부르고 있다.

# ‘한가족 동창회’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출발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는 남가주 지부가 지난 2월1일 50주년 기념 총회 및 신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남가주 부에나파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3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또 다른 50년을 약속했다.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성주경 상임이사의 소개로 행사에 참석한 역대 회장(상임이사)을 소개했다. 이날 7, 8대 이기준(법54), 10대 차종환(사 54), 13대 박상길(농58), 18대 권혁창(법 57), 23대 방석훈(농55), 24대 오흥조(치56), 29대 김건진(문62), 31대 노명호(공61), 33대 김지영(사69), 35대(상 59), 37대 서치원(공69), 38대 김상찬(문65), 39대 이서희(법70), 40대 박혜옥(간69), 41대 김병연(공68), 42대 성주경(상68), 44대 한귀희(미68), 45대 민일기(약69), 47대 박제환(문75), 48대 김경무(상68), 49대 임춘택(상68) 동문이 참석했다. 생존했지만 행사에 불참한 상임이사는 12명이다.

이어진 축사에서 유희림 서울대 총장은 화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도 관악캠퍼스 이전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 남가주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총회

### 임춘택 회장 · 채규황 신임 회장 이취임식 동창회 50년사 담은 책자도 만들어 배포

발전 모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남가주 동문들의 모교 지원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학교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강 17대 미주동창회장은 임춘택 남가주 지부장의 대독에서 “남가주 동창회의 50주년과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채규황 신임회장이 역동적으로 이끌 것을 믿는다. 미주동창회도 남가주 동창회가 필요할때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업보고, 재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지난 1월16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보고 됐다. 이사회에서는 채규황(법69) 신임회장과 양수진(간80) 차기 회장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이날을 임기로 이임하는 임춘택 49

대 회장은 이임사에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지난 해 열렸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쳤다. 특히 할리우드보울 임윤찬 연주회 공동 관람과 미주중앙일보 주최 동창회 골프대회 준수승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또 50년 역사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헌신과 불굴의 노력을 잊을 수 없고 기부로 응원한 160여 동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50주년 기념 책자 제작에 대한 간략한 보고에 이어서 제49대 회장단과 50대 회장단의 공식적인 교체를 의미하는 동창회기 이양 행사가 진행됐다. 사회자도 50대 집행부의 이영현 총무국장이 맡게 되면서 50대 회장단의 임기가 시작됐다.

채규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

들이 단대 동문회의 울타리를 넘어 모두가 서울대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더불어 활동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동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동문들을 찾아 따스한 손으로 잡아 이끌어 한 가족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올해 각 단과대학 회장이 소개됐다. 김경숙 생과대 회장을 비롯해 장동욱(간호대), 백사훈(공대), 정병혁(농대), 김종하(문리대), 이명규(미대), 안재엽(법대), 신혜원(사대), 최운화(상대), 김용진(수의대), 김향자(약대), 장진영(음대), 김자성(의대), 이찬용(치대), 윤수현(대학원) 회장 등이다.

이영현 총무국장 등 50대 집행부가 소개됐고(채규황 회장 인터뷰 참조) 감사 인준이 이뤄졌다. 또 양수진 51대 차기 회장이 소개됐으며 50주년 기념 케익 커팅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2부에서 제갈 소망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김성봉, 이규영, 백동휘 등 3명의 테너 공연과 첼리스트 김원선 동문의 공연이 이어졌다.

글 = 장병희 편집위원  
사진 = 나두섭 동문 제공



(왼쪽사진부터) 임춘택 회장이 채규황 신임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넘겨주고 있다. 남가주 50년사 제작 책임을 맡은 박용필 동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갈 소망 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동문 음악인인 김성봉, 이규영, 백동휘 등 3명의 테너가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usa17@gmail.com



남가주 총동창회 역대 회장(상임이사)들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51대 차기 회장에 선출된 양수진 동문.



행사 기념 연주를 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원선 동문. 50주년 기념 총회에는 30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했다. 여성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맨 오른쪽 사진에서는 미주동창회 고문을 맡고 있는 박종수 동문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 “단과대 울타리 넘어 한가족 되도록 힘쓸 것”

## 채규황 신임 남가주 총동창회장

### 대학원 포함 15개 단과대 동창회 결합체 “전문가 모임으로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

“단과대 동창회 울타리를 넘어 한가족 의식을 갖는 단합된 동창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1일 남가주 총동창회장으로 채규황(법69) 동문이 1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부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로 산하에 대학원 동창회를 포함해서 15개 단과대학 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3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 심지어 단대별 주소록은 있지만 남가주 총동창회 주소록은 없다.

채규황 동문은 제50대 총동창회장이고 전임 단대동창회장이 모두 부회장이자. 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는 양수진(간호80) 차기 회장이 수석 부회장 역할을 하는 것을 필두로 총무국장, 부총무, 사무국장, 재무국장, 부재무, 사업국장, 사업위원, IT운영국장, 2명의 감사가 있고 여기에 이벤트 특임 위원장이 별도로 있다. 가족의 밤 위원장, 가족의 밤 위원, 골프행사 위원장, 문화위원장(미술), 문화위원장

(음악), 문화위원, 대외협력 위원장 등이 포진해 있다.

2025년에는 매년 갖는 연례 행사만 해도 지난 2월1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총회 및 신규회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대회, 할리우드보울 가족의 밤(7월), 동문가족 야유회(9월), 와이너리 투어(10월, 미확정), 음대 및 동문합창단 합동음악회(10월), 관악연대 초청 골프대회(11월), 미대동창회 주최 미술 전시회(11월)가 있다.

이렇게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뚜렷한 목적이 채 부장에게는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의 발전 방향은 단과대학의 특징에 갇혀서 배타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대 동문회의 벽을 넘어 모든 동문이 ‘한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울대인’으로서 단합된 서울대 동창회를 만드는 겁니다.”

채 회장은 그래서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한번도 본적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후배들도 과감하게 기용



채규황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했다.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돼 우리 동창회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덧붙였다.

미주 동창회보를 통해 남가주 지부 동문들에게 몇 가지 부탁과 기대 사항을 밝혔다.

첫째, 올해 동창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서의 서울대인’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길을 걷고 있지만, ‘서울대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함께 성장해 왔는데 이런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동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동창회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고 후배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마당 혹은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전문인 모임이기도 한 서울대 총동창회는 함께 발전하는 네트

워크를 만들기 위해 동문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서울대인’이라는 공동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단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남가주 뿐만 아니라 전 미주 동문회 그리고 해외 각지의 동문회도 함께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 (Synergy)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채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44년이 지나 동창회장을 맡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제 50대 회장직은 그만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을 맡게 된 동기 중에는 서울대 동문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는 단합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며 “또 다른 동기는 서울대 동창회가 남가주 한 인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동창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문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선배들의 사회생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후배들과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창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은 1980년 미국에 도착해 개인 사업을 해왔다. 1979년에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장병희 편집위원

조지아 지부

여성 동문들 첫 만남

조지아 지부(회장 최화진, 음대 85) 여성 동문들이 처음으로 여성들만의 모임을 가졌다.

지난 2월1일 애틀랜타 교외에 있는 델루스의 한 음식점에 68학번에서 2003학번까지 여성 동문 10명이 모였다.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은퇴한 선배들은 오래 전 이민 와 정착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줬고 젊은 후배들은 직장 얘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최화진 회장은 “지부 단체 카톡방에 여성 동문이 20여분 된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 친목을 다지고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자리에 처음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는 조지아주 여성 동문들.

소모임 활성화 적극 추진 ... 골프 · 서예 동호회 출범

워싱턴주 지부

2025년 새해를 맞아 동문 가족 모두의 복된 한해를 기원하는 서울대 워싱턴주 지부 신년 하례식이 2월 8일 이명자(간호대 74) 동문 집에서 열렸다. 동문과 가족 50명 가까이 참석했으며 각 동문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과 와인을 나누며 설날 잔치 분위기를 즐겼다.

이명자 동문과 부군인 이제선 Firstech 회장은 모임 장소를 제공한데 더해 밥, 떡만두국, 생선회, 초밥, 과일, 음료수까지 준비해 동문들을 맞이했다. 정은구(치대 92) 동문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산 고급 와인 Caymus 3L를 가져와 Wine Cradle을 이용해 와인을 부어 동문들과 서로 나눠 마셨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 그 큰 와인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다.

이정관(농대 83) 회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행사를 열며, 지난 19년 동안 총무와 회장으로서 성심을 다해 봉사해온 임헌민(공대 84) 전임 회장과 서인숙 여사 부부, 7년 동안 회계를 담당해온 정태환(공대 89)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는데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감사의 박수가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뒤이어 동문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회와 SNU Forum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명자 장학회장은 장학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 상황을 설명하며 많은 동문들이 좋은 뜻을 함께하기를 부탁했다. 김재훈(공대 72) 동문은 SNU Forum을 통해 매달 여러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미국 밖에서도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세미나 시간을 둘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미국 서부 시간)로 옮겼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이정관 회장은 올해부터 동문 간의 교류를 위한 소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출발점으로 유주현(미대 95, 공대 01) 동문의 골프 동호회와 송은주(간호 85) 동문의 서예 동호회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동문들

이명자 동문, 집 제공에 푸짐한 음식까지 준비  
임헌민 전 회장 부부 · 정태환 동문에게 공로패

의 뜻깊은 활동에 대해 응원의 마음을 모았다.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신년하례인사를 하고, 새로이 동문회에 참여한 한광훈(의대 89), 조수행(공대 93), 김영진, 김아영, 김성진(대학원 박사) 동문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쉬운 작별의 인사도 있었다. 이재익(의대 88) 동문은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부임하기 위해 행사 다음 날 귀국 예정이었음에도 동문들에게 지난 5년간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

며 동문들도 이재익 동문의 건승을 빌었다.

특별 순서로 피아니스트 김윤정(음대 77) 동문이 쇼팽의 마주르카 4번(Op 17)과 연습곡 4번(Op 10)을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가 마련됐다.

쇼팽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는 분위기는 곧이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전통 놀이를 즐기며 절로 터져 나오는 환호로 바뀌었다. 전체 세 팀으로 나눈 다음 각 팀에서 공기놀이 세 명, 제기차기 두 명을 대표로 선발하여 진행했

는데 정태환 동문의 제기차기 16개 기록은 탄성을 자아냈다.

행사의 절정이 되었던 윗놀이는 모두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안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명이 한팀이 되어 한 라운드에 각각 한번씩 던져 나온 결과를 합하고(도 1, 개 2, 걸 3, 윗 4, 모 5), 두번째 사람이 던진 마지막 결과가 백-도인 경우 해당 라운드의 최종값에 마이너스를 두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내었는데 전체 다섯 라운드를 하여 최종 점수로 일등과 꼴등팀이 행운의 상품을 받았다.

오후 4시가 되어 행사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나눴고 하계 피크닉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다.

취재=박한규(공대 91)



워싱턴주 지역 동문들이 이명자 동문 집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사진부터) 19년간 총무와 회장으로 봉사해온 임헌민 동문과 부인 서인숙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7년간 회계를 맡은 정태환 동문도 공로패를 받았다. 나파밸리산 고급 와인 Caymus 3L를 가져온 정은구 동문.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이 지난 1월18일 학생 동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선배 동문들과의 교류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 동문들이 지난1월25일 처음으로 친목 모임을 열고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열기로 했다.

# 학생 동문들 초대해 선배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

## 미네소타 지부

### 문성인 새 회장, 젊은 동문들에 적극 손짓 학생 동문들도 정기적인 친목 모임 열기로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은 지난 1월18일 학생 동문 11명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젊은 동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회장과 미네소타 지부 회장을 지낸 차재호 동문 부부가 학생들을 위한 새해 선물과 음식을 갖고 참석해 모임을 더욱 훈훈하게 했다. 두 선배 동문은 특히 성공한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

면서 자리를 빛냈다. 동문들은 식사와 가벼운 담소를 나누고 후에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럿이 함께 일 한 경험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은 서울대가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지식을 쌓고 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공동

의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너지를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에 의견을 공감하고 동문회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한편, 지난 1월 25일에는 동문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친목 모임이 미네아

폴리스 다운타운에 있는 Smack Shack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학생 동문 9명이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다졌다. 동문들 간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 학업, 연구 및 진로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로 소통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고민을 나누고 선배학생의 조언을 듣기도 하며 동문 간 유대감을 더욱 깊이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학생 동문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친목 모임을 추진하며 동문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더욱 다질 계획이다. **취재=문성인 지부 회장**

# 설음식 · 떡 나누고 제기차기 · 윷놀이하며 설날 행사

## 미시간 지부

미시간 동문들은 지난 1월 25일 Southfield에 있는 한인문화회관에서 설날 행사를 열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예년 보다 적은 2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 동문들은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느 동창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우렁차게 교가를 부르며 설날행사를 시작하였고 이호정(음대 81) 총무의 환영사와 이광진(공대 81)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문들은 맛있게 차려진 설음식과 떡을 나누며 담소를 했다. 이후 국민체조(?)로 소화를 도운 후 심민정(음대 96) 동문과 임지원(임성철 동문의 차남)군이 대금으로 이선희의 노래 '인연'과 아리랑을 연

주해 동문들의 박수를 설받았다. 이어 이광진 회장이 싱얼롱을 진행해 동문들은 학창시절 자주 부르던 김민기의 '상록수'와 '아침이슬'과 같은 노래들을 열창하며 옛추억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또다른 하이라이트인 게임은 홀수 학번과 짝수 학번간의 대결로 진행되었는데 최명동(사범대 대학원 98) 동문의 낱말 맞추기 게임은 난이도가 매우 높았지만 동문들은 서울대 출신 답게 퀴즈를 풀며 '공부 DNA'를 뽐냈다. 임성철(농대 86) 동문이 진행한 제기차기와 윷놀이의 열기도 뜨거웠는데 최종적으로 짝수 학번의 승리로 끝났다. 동문들은 따뜻한 계절이 오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취재= 이광진(공대 81)**



미시간 동문들이 지난 1월25일 설날을 앞두고 함께 모여 설음식과 떡을 나누고 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설날 맞이했다



(왼쪽 사진부터)임성철 동문의 차남 임지원군과 심민정 동문의 대금 연주. 설 전통놀이인 윷놀이에 진심인 동문들. 동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학창시절 애창곡인 '아침이슬'을 열창하고 있다.

플로리다 지부

뉴욕서 여행 온 동문들과  
골프 치며 즐거운 신년모임

플로리다 지부(회장 윤기향)는 지난 1월 17일 동문 및 배우자들이 모여 골프대회와 함께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총 12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플로리다로 여행 온 뉴욕지부 골든클럽 회원들(계동회 동문, 천병수 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 해 모임이 더욱 빛났다. 플로리다 지부 회장을 지낸 조동건 동문(공대) 최희덕 동문(사대) 그리고 윤기향(법대) 현 회장이 모임을 주관했으며 김종권 동문(의대)이 재정 지원을 했다.



뉴욕서 여행 온 동문들과 함께 모인 플로리다주 동문들.



지난 1월 25일 워싱턴 D.C. 지역 동문 및 가족 80여명이 지난 1월25일 신년 하례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워싱턴DC 지부

“저는 요~” 직접 자기 소개하며 친밀감 다져

지난 1월 25일 워싱턴 D.C. 지역 동문 및 가족들이 Breakers Korean Bar-B-Q에서 신년 하례 모임을 가졌다. 80여 명의 동문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떡국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조현수(환경계획학과 23)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욱현(경영 84)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남 회장은 “동창회는 동문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장”이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새롭게 참석한 동문들의 소개 시간이 마련되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어 최근 워싱턴 D.C.에 온 김근영(인류 96) 동문과 안민영(경영 01) 동문이 새로 소개됐다.

남욱현 회장은 “그동안 여러 번 만났어도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동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순서를 마련해 보다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영목(공대 59, 전 동문회장) 동문은 삼국통일을 이룬 김춘추와 김유신 가문에 얽힌 꿈 이야기를

남욱현 회장, 젊은 동문들로 새 임원진 꾸려  
새해맞이 첫 행사에 동문 가족 80여명 참석

들려주며 모두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조선 시대에는 과거 급제의 꿈을 사교파는 문화가 있었으며, 꿈이 실현되면 증서에 따라 쌀 100석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AI와 우주 탐사 시대에 ‘꿈을 파는 에이전트’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유머러스한 질문을 던지면서 덕담 한마디를 남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이어진 박평일(농대 69, 전 동문회장) 동문의 덕담은 단 한 마디, “ME TOO!”였다. 그는 과거 동창회장을 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는 서부 개척 시대 같았다. 지금은 후배들이 체계적으로 동창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남욱현 회장은 1998년 미국으로 오게 된 자신의 특이한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직장에서 아침에 미국 출장을 통보받고, 같은 날 오후에 출국했다는 것이다.

3박 4일 일정이었던 출장은 결국 6개월이 넘게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워싱

턴 D.C.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공순옥(간호대 66) 동문은 1970년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때는 물값이 너무 비쌌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부잣집 친구가 물값을 아끼려고 우리 집에서 양말을 빨았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운 적이 있죠”라는 에피소드가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 순서로 새로 임명된 임원진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새 임원진 명단.  
**회장:** 남욱현(경영대84)  
**부회장:** 강형석(공대 86), 류엽(법대89)  
**총무팀:** 김진실(농업생명과학대 12), 안정열(자연과학대 11)  
**학술팀:** 김희범(건축대학원 15)  
**뉴스레터팀:** 박기현(사회과학대 08), 백승하(자연과학대 11)  
**골프팀:** 오재환(물리교육 85), 이준(조경 94)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하는 2025년, 워싱턴 D.C. 동문회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모임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신년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미대 81>



2025년 워싱턴 DC동창회를 이끌 새 임원진. 왼쪽부터 부회장 강형석(공대86), 총무팀 김진실(농업생명과학대 12), 학술팀 김희범(건축대학원 15), 뉴스레터팀 박기현(사회과학대08) 백승하(자연과학대 11), 총무팀 안정열(자연과학대 11) 심지민(농업생명과학대21) 동문.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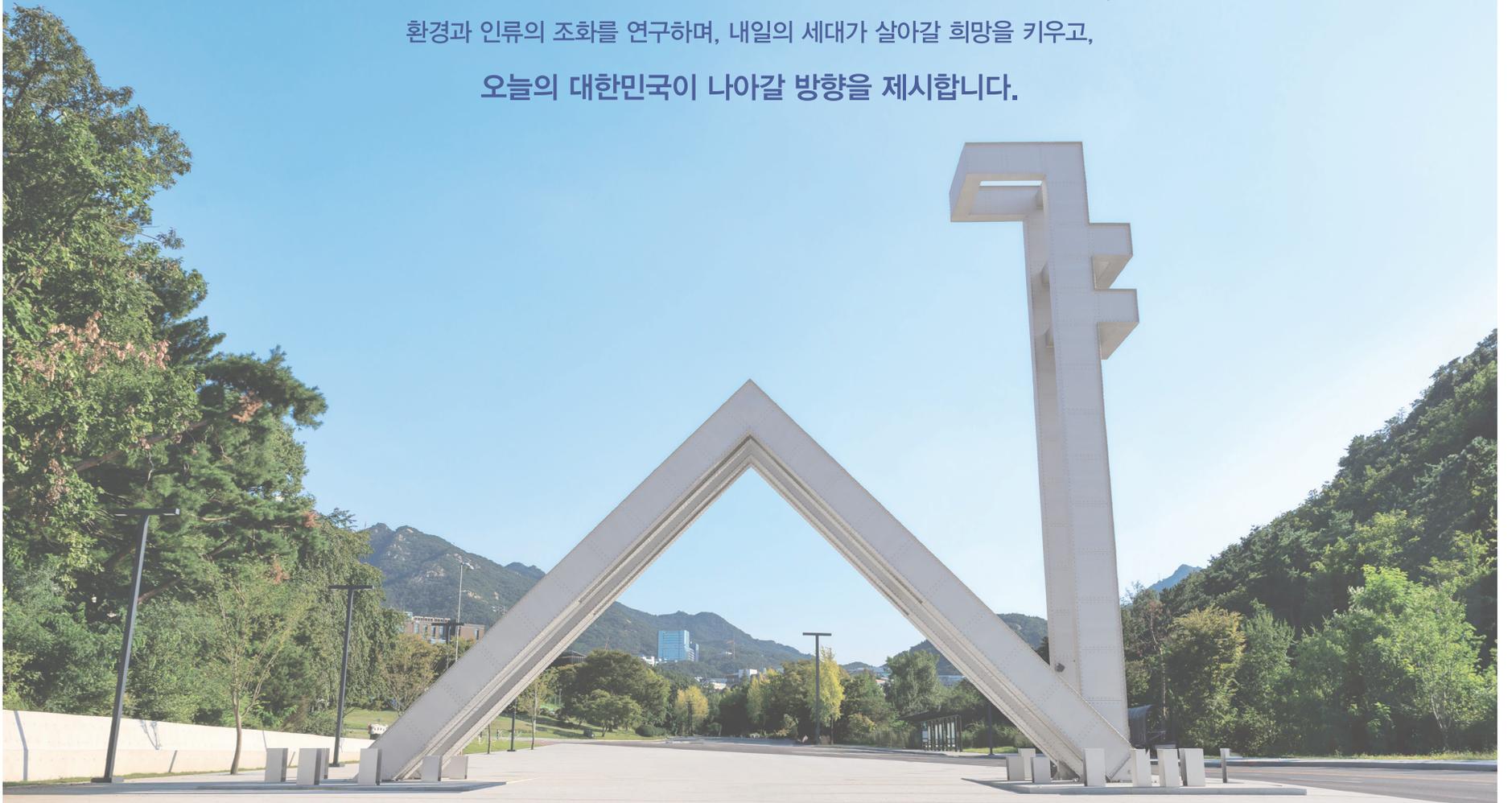


202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50년을 맞아  
‘더 큰 내일을 위해 함께 이루는 꿈’을 시작합니다.



#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 1975-2025

1946년 개교 이후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이 1975년 종합화 되면서  
다양한 학문 간의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유수의 단과대학이 모인 종합대학의 토양 위에서 건강과 생명을 탐구하고,  
환경과 인류의 조화를 연구하며, 내일의 세대가 살아갈 희망을 키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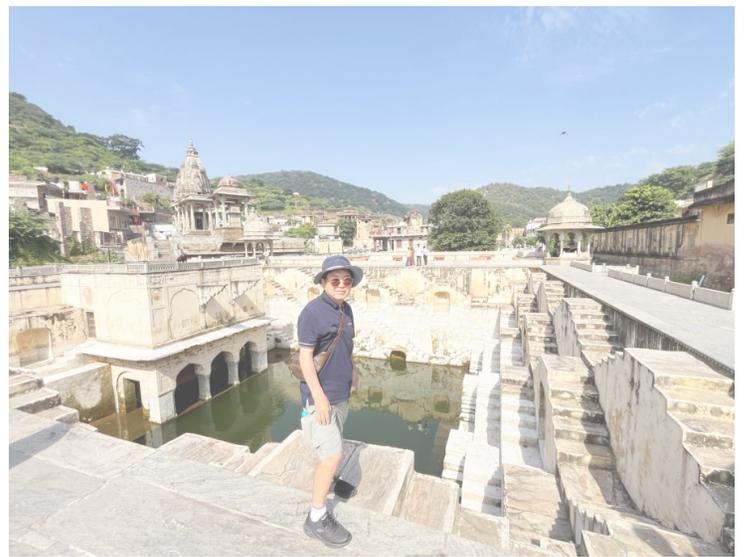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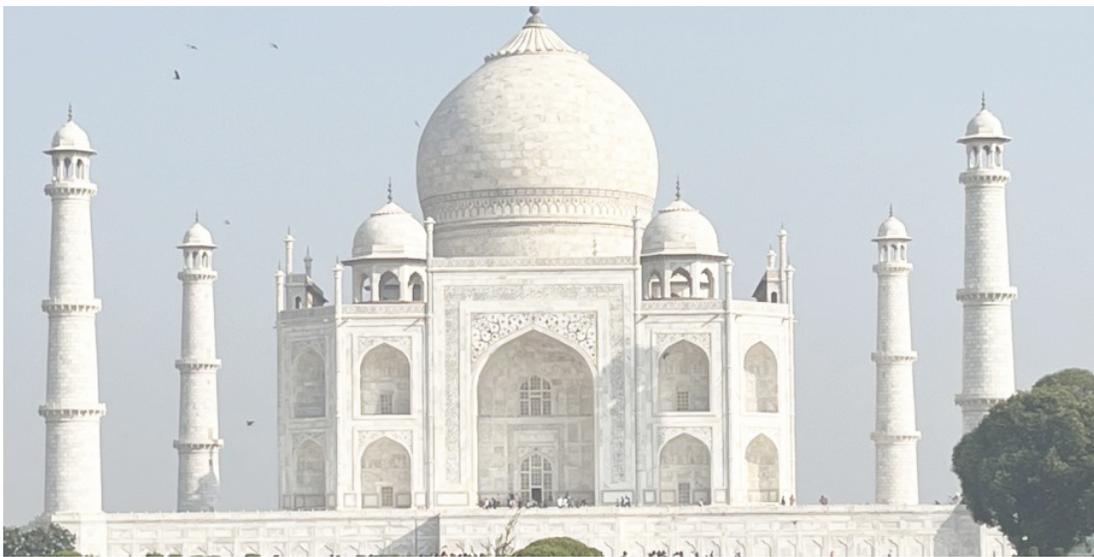
### SNU COMMONS 후원하기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 참여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는  기부액  원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이슬람 최고의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의 웅장한 모습. 하기환 동문이 앰버궁전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물 저장시설에 둘러 한 것 '찰칵' 했다.

##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인도 문화 탐방

# 정교하고 웅장한 이슬람 건축물에 감탄 절로

### 아름답고 슬픈 타지마할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출을 보러 갠지스강으로 배를 타러 간다고 했다. 나는 그 여정에 빠진 후 짐을 찾으러 공항으로 갔다. 알아본 결과 내 짐이 오후 3시 비행기로 이곳으로 온다고 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 우린 여기서 기차를 타고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Agra)로 가기로 했던 것. 기차 출발 시간은 3시 20분. 기차를 취소할 수 없으니 또 짐 받기는 틀렸다.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짐을 아그라에서 찾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짐이 없으니 앞으로 2주 동안 단발신사로 돌아다녀야 한다. 호텔로 돌아와서 일행과 함께 기차역으로 향했다. 바라나시에서 아그라까지는 직행 비행기가 없기에 기차를 타야 한다. 아그라에서 짐을 찾게 되기를 바라며 기차에 올랐다.

이제 15년 전 좋았던 바라나시 인상이, 짐 문제까지 겹쳐 다시는 못 올 것으로 느낌이 바뀐 것 같다. 우리가 탄 특급 기차는 시설이 좋아 보였다. 바라나시에서 아그라까지는 633km인데 7시간 정도 걸린다. 특급이라도 중간 큰 도시에서는 정차를 했다. 달리는 중간에 저녁을 주고 간식용 음식을 한 번 더 서브한다. 객실은 의자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았다. 한국의 KTX급 열차처럼 보인다. 다만 특급이라지만 느린 것이 약점이었다. 그러나 운임은 놀랍게도 저렴하다. 개인당 18달러 50전. 서비스 받은 음식값만 해도 LA에선 한 사람 당 20달러 이상 들었을 것 같다. 정말 싸긴 싸다. 기차는 저녁 늦게 아그라에 우리를 내려 주었다.

미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타지마할(Taj Mahal) 관광 전문가를 예약해 놓았다. 아침 8시에 약속한 가이드가 호텔로 왔다. 타지마할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 당연히 입구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가이드를 대동한 외국인들은 전용 입구 사용이 가능했다. 1631~1648년 무굴제국의 황제 샤자한(Shah Jahan)이, 1631년 세상을 떠난 아내 뭉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무덤. 왕비는 14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다. 흰

색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일 것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유산의 최고 걸작인 타지마할은, 22년에 걸쳐서 2만 명이 동원돼 완공했다고 한다. 왕의 명령에 따라 수천여 명의 석공, 대리석 기술자, 모자이크 기술자, 장식업자가 팀을 이루어 건설하였다.

모든 건물은 사방 정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었다. 4개의 입구와 4개의 탑 어느 쪽에 서서 봐도 같은 크기로 보인

다는 것이다.

### 아그라 포트의 웅장함 압권

타지마할에서 가이드와 헤어지고 우리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툽툽, 오토릭사를 탔다. 매연을 푹푹 풍기는 열악한 오토릭사를 타고 아그라궁전 포트를 찾았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그대로 읽어 아그라 포트(Agra Fort)로도 많이 불리는 성이다. 인도를 점령한 무슬림의 무굴제국의 붉은 요새이자 왕궁. 우리가 들렀던 타지마할 서문(West Gate)에

## 엄청난 건축물로 자손들 관광산업 '행복' 신호등, 자동차 길 없는 인도 '갈 길 멀어' "하와마할, 앰버궁전, 시티팰리스 등 보며 힌두와 이슬람 문화 융합 통해 발전 실감"

다. 하얀 대리석은 이곳에서 40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가져왔고, 꽃무늬와 아라비안글자 조각은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보석돌로 새겨 넣었다. 실제 묘지는 지하에 있고 가묘는 일층 중앙에 설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다. 여왕의 관은 건물 정중앙에 위치했는데, 왕의 묘지는 여왕 옆 비좁은 공간에 놓여있다. 왕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타지마할 맞은편 야무나강 넘어 검은색 대리석으로 본인의 무덤을 크게 만들려 했다는 것. 기초공사는 끝났으나 왕이 죽는 바람에 완성을 못했다고 한다. 타지마할은 궁전이 아니라 묘지로 지은 것이고, 양 옆 부속건물은 이슬람 모스크였다.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은 슬픔도 간직하고 있다. 순백색 대리석은 달빛 아래에서 은색으로 반짝인다. 동틀 무렵에는 열은 분홍색을 띠며, 해질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든다. 이런 걸작을 만든 왕 샤자한은, 친아들 아우랑제브(Aurangzeb)에게 왕위를 박탈당한다. 우리가 방문할 아그라궁전 포트의 팔각탑에 왕은 죄수가 되어 갇혔다. 타지마할 곁을 흐르는 야무나강을 가로지른 아그라 요새의 팔각 탑 감옥.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뭉타즈의 묘를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

서, 서쪽으로 약 3k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성을 둘러보니 정말 그 규모가 굉장했다. 테라스에 오르니 과연 타지마할이 보인다. 아들에게 유폐당한 황제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직접 바라봤다는 팔각탑도 있다. 궁성의 규모가 대단히 넓다. 얼마나 큰지 그 부지의 20%만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80%는 현재 인도 군대가 사용한다는 것. 공개된 성을 돌아보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성을 탐방하며 그 웅장함에 거듭 놀랄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복궁과 비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곳곳에 사용했던 방도 무수히 많았다. 정말 대단한 규모였다. 당시 힌두교를 믿는 국가를 멸망시킨 무슬림들이 지은 궁전 혹은 성. 이렇게 화려하고 큰 이슬람 궁전을 지은 노동력은, 전쟁에서 진 인도의 힌두인들이었을 것이다. 가이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지 힌두인이나 이슬람인이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건 가이드의 생각일 거고, 지금도 인도 북부 카슈미르에서는 두 종교분쟁이 첨예하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종교 때문에 인도에서 분리 독립했다. 그러다 인도에서 무슬림 제국이 다시 멸망하자, 인도는 도로 힌두교로 돌아왔다. 종

교의 복원력이 과연 대단하다는 걸 우리는 역사에서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토목과 건축은 정교한 과학이 필요하다. 무슬림들의 과학은 그 당시 세계의 톱클라스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도 이슬람이 만들었다. 당시 수학과 천문학 등에서 이슬람은 월등하게 앞선 문명을 갖고 세계를 지배한 것이다. 그때 만들어진 타지마할과 아그라 포트. 돌아 온 힌두인들이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돈을 버는 걸 보면, 세상은 과연 돌고 돈다. 앞으로 가야 할 유적지들도 결국 종교 유적이 대부분일 것이다. 아그라 포트에서 나온 우리는 또 다른 무굴시대의 묘지를 보러 갔다. 1500년대에 지어진 묘지인데 타지마할보다 상대적으로 작기는 했지만 이곳도 상당한 규모였다. 일부 대리석이 떨어져 쇠락한 곳이지만 15세기에 이슬람들이 이렇게 정교한 건축을 한 것에 놀란다.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중국 진시황의 묘, 이집트 피라미드. 모두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이런 대단한 묘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하여 만든 건축물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다. 이제 후손들은 피내도 마르지 않는 이런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잘 먹고 살고 있다. 지금 이들은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다른 유적지 탐방은 너무 더운 날씨에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에서 론시어지 담당자에게 비행기에서 찾지 못한 내 짐 이야기를 했다. 그가 확인한 바, 반갑게도 내 짐이 우리가 떠난 바라나시에도 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자이푸르(Jaipur)로 가야 한다. 짐을 다시 자이푸르로 보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 곳에 있다면 쉽게 받겠지만 계속 장소를 옮기니, 내가 짐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다.

### 푸짐한 카레 4인분이 35불

이튿날 오후 5시 기차로 자이푸르로 가기로 했으니 시간이 넉넉하다. 호텔에서 푹 쉬 다음에 이곳 재래시장을 돌아 보기로 했다. 모든 나라의 시장



핑크도시로 알려진 자이푸르시의 산 언덕에 있는 엠버궁전의 위용.



피리소리에 뱀이 춤을 추는 '코브라 댄스'는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된다. 함께 여행한 하경철씨가 '겁도 없이' 코브라 머리를 만지고 있다.

## 사람 냄새 나는 재래시장 방문은 언제나 즐거워

은 그 동네문화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광지였다. 아그라에 있다는 서울의 남대문시장 같은 곳을 둘러보기로 하고 호텔을 나섰다. 인도는 저렴한 물가 때문에 모든 것이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물건값이 정말 저렴했다. 어제도 카레 위주로 4명이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35달러 밖에 나오지 않았다. 괜찮은 식당에 맛있고 또 양도 푸짐했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시장에는 역시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나는 갈아 입을 속내의와 양말, 그리고 티셔츠를 샀다.

시장 구경은 언제나 재미있다. 어느 골목으로 갔더니 가죽제품이 너무 싸다. 거기서 구두와 슬리퍼, 그리고 작은 가방을 사서 앞으로 남은 여행준비를 했다. 사람이 넘치는 인도. 아그라 시장의 인파도 장난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대도시로 사람이 모인다. 수도 뉴델리는 인구가 3400만, 뭄바이는 2300만, 바라나시는 430만.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는 아그라는 230만 정도라고 한다. 자이푸르는 430만 정도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했다. 인구 대국답게 어디서나 사람이 넘쳐 서로 부딪치듯 사는 것 같다. 가난한 나라의 무질서는 무섭기까지 하다. 교통신호도 없고 자동차 길 라인도 없고, 그냥 무작정 밀어대는 사람들. 틈만 나면 주저없이 끼어드는 사람이나 차량이 이기는 곳이다. 극심한 공기오염(Pollution)이라 평균수명도 많이 낮을 건 분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인도가 중국을 대신해서 뜨는 경제강국이라고 평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여행하며 만난 민낯의 인도는 아직 모든 면에서 갈 길이 먼 것 같다. 중국을 따라잡으려 한다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무질서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정치인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11월이 다 됐는데도 한국보다 인도가 훨씬 덥다. 당연히 더운 것은 위도가 한국보다 10도나 낮은 남쪽이라 그렇다. 뉴델리 위도가 27도인데 서울은 37도. 남쪽답게 아열대 기온이라 더운 것이다.

오후 5시에 역에서 자이푸르로 가는 기차를 타고 보니 급행이 아니다. 고작 270km정도 가는 데 무려 5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기차는 시간을 맞

추어서 떠났다. 객실 앞쪽에는 사람들이 선 채 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 것 같았다. 입석이 많은 탓이다. 다행히 우리가 산 티켓은 침대칸이었다. 한방에 벅커 배드 4개를 양쪽으로 놓고 누워 잘 수 있게 된 객실. 그동안 걸어 다닌 게 피곤했던지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내가 자는 동안 일행이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었다고 했다. 객실 전기에 가지고 있는 전기밥통 같은 것으로 물을 끓인 것이다.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으면 라면을 끓이고 먹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그만큼 인도여행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 핑크도시(Pink City) 자이푸르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가이드와 만나서 핑크도시(Pink City)라 불리는 자이푸르 관광에 나섰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세 개의 도시인 델리, 아그라, 그리고 이곳 자이푸르를 묶어서 인도 북부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관광 사진에 많이 나오는 하와마할은 자이푸르 시내 중심부에 우뚝 솟아 눈에 띄는 명소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전은 바람의 궁전(Palace of Winds)으로도 불린다. 하와(Hawa)는 산들바람을 의미하고 마할(Mahal)은 궁전을 의미하니, 하와마할은 바람의 궁전이다. 성은 모두 핑크색 사암으로 만들어졌다. 궁전의 격자 세공은 궁녀들이 눈에 띄지 않고 거리에서 열리는 일상생활과 축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하와마할을 본 후 우리는 엠버(Amber) 팰리스로 갔다. 엠버궁전은 산 위에 있어 엠버포트(Amber Fort)로도 불린다. 궁전까지 코끼리를 타고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힌두교 축제 기간이라 코끼리도 쉬는 시간이라.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성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중간에 힌두교 사원과 거대한 물탱크 저장소를 보았다. 문순 시즌 여름에만 비가 오는 아주 메마른 지역이라 물 저장을 위해 만든 물탱크였다. 엠버궁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몇 배 이상 비싸다. 엠버궁전은 말을 들은 대로 화려했고 규모가 어마하게 컸다. 이슬람 건축양식인 돔 형식과 아치형의 조합으로 지어진 궁전. 엠

버궁도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지은 궁전이였다.

내실에 정사각형 한 면마다 3명씩 여왕이 거처할 수 있었다는 방이 보인다. 그러니까 할렘인 셈인데 왕은 12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 내실을 경비하는 군인은 한국 왕조시대의 환관같이 모두 거세를 한 사람만 뽑았다고 한다. 혹시 왕비와 눈이 맞아 정분이라도 날까 봐 사전 대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엠버궁전을 보고 가이드가 권하는 곳을 찾았다. 나무도장을 옷감에 찍어서 수를 놓는다는 곳이었다. 그곳엔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사리웃도 있고 캐시미어 실크로 만든 스카프도 보였다. 나는 15년 전 인도에 왔을 때 무지하게 바가지 쓴 기억이 있다. 관광객 위주의 민을 만든 쇼핑센터였는데 덤터기를 쓴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런 경험은 많은 사람이 겪었던 일이다. 돌아오는 길에 납골당 같은 묘지를 돌아보았다. 왕의 가족묘 같은 곳이라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다음에 들어갈 묘지를 성대하게 만드는 건 님은 꼴이다. LA공원묘지에도 가족묘를 볼 수 있다. 수십만달러 들여서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좋은 위치에 모시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 잔타르 만타르 천문대

다음 날 아침은 시티팰리스를 찾았다. 자이푸르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이 궁전은 자이푸르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다. 옛 시가지에 핑크색 외벽 안에 시티팰리스 궁전이 있다. 궁전 안에 유럽에서 수입한 유리로 벽과 천장을 장식한 방이 보였다. 정말 왕족들 사치의 극치를 보는 듯했다. 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4개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계절에 맞게 각각 색의 타일로 출입구를 장식한 것이 아름답고도 이채롭다. 무슬림이 점령하며 기존의 힌두 문양과 조합해서 만든 작품 같은 건물이었다. 문화는 융합을 통해 더 발전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지금도 이 궁전 한쪽에는 왕의 후손들이 실체로 거주하고 있다.

궁전 바로 옆에 잔타르 만타르라는 천문대가 있다. 1700년대에 만든 것. 이 천문대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해시계가 있

는데, 2초 정도의 오차로 정확하다고 했다. 이곳엔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런 문화가 이슬람이 천문학, 수학 등 엄청난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다. 밖에서 보았던 핑크 시티 자이푸르 대표작품인 타와마할 벽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올라갔다. 당시 궁의 할렘에서 사는 여인들은 모두 왕의 소유물이였다. 일단 궁에 들어오면 밖에 세상과 단절이 되니, 이 벽은 밖의 저자거리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작은 문과 구멍을 통하여 밖의 세상을 보게 만든 것이다. 길에서는 안쪽을 볼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들렀던 타지마할 무덤 4개의 높은 탑에도 무슬림 과학이 숨어 있다. 바깥쪽으로 2~3도 경사 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혹 지진으로 탑이 파괴될 때, 본 건물로 쓰러지지 않게 지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이슬람 건축가들의 세세한 설계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아침부터 강행군으로 더위 속에 관광을 강행하고 나니 많이 지쳤다. 시원한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살 것 같다. 그때 내 짐이 자이푸르공항에 도착했으니 호텔로 보내 준다고 했다. 숙박쪽질을 끝내고 드디어 만난다니 무척 반갑다. 옷과 세면도구 갖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기다림이란 조금씩 때문일까? 곧 보내준다는 짐은 긴 기다림 끝인 늦은 밤 11시에 도착했다.

자이푸르 중요한 관광은 끝났다. 다음 행선지 우다이푸르(Udaipur)로 가는 비행기는 오후 5시였다. 오전에 엠버 궁전 옆 아라발리 산정에 지은 나하가르 요새(Nahargarh Fort)를 찾았다. 나하가르성은 도시방어용으로 건축된 요새였다. 엠버궁전에서 사파리형 지프 차로 끝없는 길을 올라 요새에 도착했다. 산꼭대기에 지은 요새는 군인들이 주둔하며 도시들을 경비했다. 또 이곳에도 궁전을 지어 왕이 살았다고 한다. 그 당시 산꼭대기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해서 이렇게 큰 궁전과 요새를 지은 것에 그저 놀랄뿐이다. 산 정상에서 자이푸르시를 360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요새에는 그 당시 사용했던 무지하게 큰 대포도 진열이 되어 있었다. 성곽으로 둘러싼 요새이며 궁전에는 야생 원숭이도 무리지어 살고 있었다. <계속>

# “어머님이 세상을 등지셨다…모든 것이 무너진다”

샌디에고 박상호 동문(치대 80)의 2024년 마지막 일기장

람들은 시간이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나, 한 순간에 멈추어 움직일 수가 없다. 때론 시간적 공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 깊이를 알 수 없는 아픔 속으로 달려든다.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인연은 모두의 가슴 한 구석에 영원히 남아, 죽음의 강렬한 벽을 넘어 그 빛을 발휘한다. 아직도 그녀는 우리들 형제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한 해의 마지막으로 달려 가는 12월 끝자락에, 어머니를 보내 드려야만 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

를 다룬 영화다. 영화는 우리의 오래 전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해 준다. 내가 지금까지도 오래전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두 장면 때문이다. 첫 번째가 반함(飯含)의 순간이다. 죽은 노모의 입을 벌려 손가락에 쌀을 올려, 입 속에 넣어 드린다. 첫 술을 넣어 드리고 외친다.

“미국에 계시다는 오빠에게 연락할 시간인 듯합니다.” 어머니의 병실을 홀로 있는 1인실 공간으로 옮긴 저녁에, 수간호사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한다. 사실 여동생은 오빠가 일찍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 드렸으면 했다. 구멍가게 치과 점포를 운영하는 오빠는, 가능한 치과를 오래 닫고 싶지 않았음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형제 모두는 서로가 나누어 가졌던 부족함의 과거로 인해,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지 못한다. 기울어진 기둥의 외아들로 자란 나는, 유난히 궁핍한 파도가 두렵다. 그 긴박한 불효의 연약한 지반에서, 수간호사가 밝은 한마디는 방아쇠에서 당겨진 붉은 탄환처럼, 고맙게 내게 달려왔다. 항공사에 직접 급히 전화를 걸어 비행기 표 한 장을 어렵사리 구한다. 크리스마스 휴가로 뉴욕에서 온 아들도 가까스로 티켓을 구했다. 항공사는 달라도 자정 가까운 시간에 미래의 상주와 장손이 나란히 공항에 자리하게 됐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크리스마스 저녁이다. 세상을 구하러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날에, 우리 엄마 세상을 털고 하늘로 가시려고 한다. 바빠Uber를 불러 LAX로 달려간다. 밖은 오늘따라 더욱 어둡다. 아들이 갈 때 까지만 버티어 주시라고 고개를 떨구고 신음한다. 아들과 나는 각기 다른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린다. 치과 매니저에게 급히 한국으로 떠난다는 문자를 보내고, 환자의 약속을 일단 모두 열흘 뒤로 미루라고 부탁한다. 돌아오는 표는 아직 구하지 않았다. 게이트가 열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조이는 순간,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달려온다. 어머님 방금 세상을 등지셨다고. 모든 것이 순간 멈추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진다. 슬픔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한국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이야기했었다. 오빠가 오고 있다고. 아들이 오고 있다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과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고 했다.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어미를 버리고 한국을 떠났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 현실이다. 사실 나는 자의적으로 임종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에게 삼일장의 시작을, 내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하자고 부탁했었다. 이기적인 상주 때문에 삼일장이 오일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바빠 장례식 일정에 관해 형제들의 단독방에 글을 어수선하게 남긴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모든 일정을 큰누님에

게 일임한다.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기로 문자를 써가며 나에게 굶은 시선을 떨군다. 지난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갔었다. 집사람의 충고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뵈고 오라고. 어머니의 치매증상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으셨다. 아들을 보는 엄마는 몹시 수줍어하셨다. 어찌먼 아버지를 빼어 닮은 아들의 모습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신랑을 만나고 있을 지도 몰랐다. 누나들이 엄마에게 당신의 아들 상호가 앞에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어머니는 다시 눈가에 굳은 살이 퍼지며, 조그맣게 웃으셨었다.

비행기 안에서 설익은 잠이 찾아온다. 우리 형제들은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장례일정을 상의했었다. 20여년 전에 보내드린 아버지의 죽음보다 마음의 준비가 새뜻하다. 아버님은 화장 후 납골당에 모셔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부부 납골당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장례 절차를 읽어 나갔다. 모든 예식들이 바빠 상여의 뒤를 따르고, 머리 속으로 가족들이 즐지어 스쳐간다.

수시(收屍) : 주검을 반듯하게 하고,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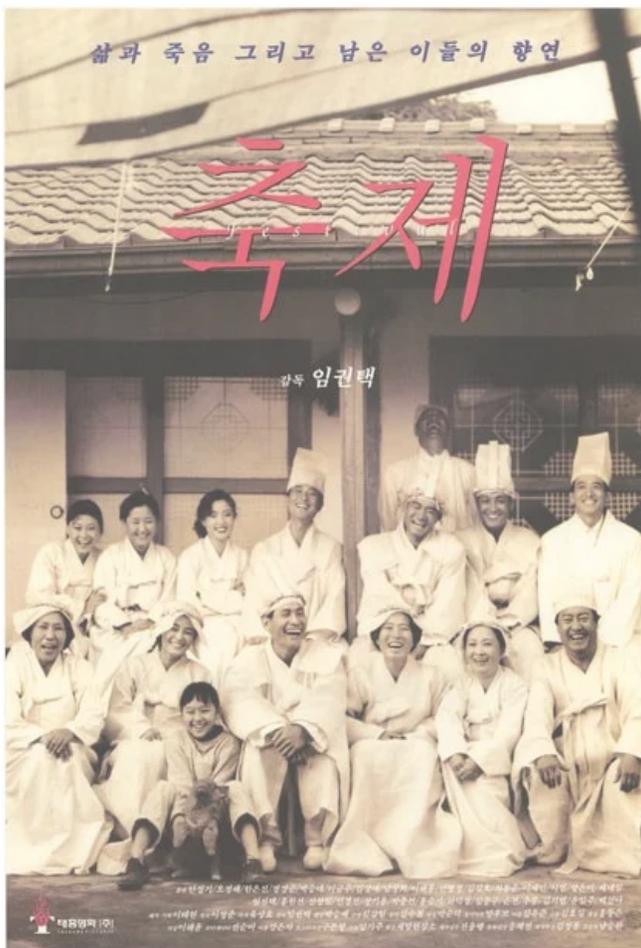
을 곱게 감도록 쓰러 내린다. 팔다리를 가지런히 한다. 손발을 곱게 펴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 손을 위로 배 위에 올려 놓고 두다리를 모아 백지나 봉대로 묶는다.

습(襲) : 시신을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반함(飯含) : 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구슬 등을 넣는다. 고인이 저승길에 갈 때 식량과 노잣돈으로 여겨 행하나, 현대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

잠시 하늘에서 꿈을 꾸다. 꿈은 아주 오래 전 보았던 영화와 뒤범벅이 된다. 설익은 꿈 속에서, 영화와 현실이 오버랩되어 살아 있는 듯 꿈틀댄다. 1996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다. 그해 백상 예술대상과 청룡 영화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차지했다. 이정준 소설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다. 나는 사실 동시대에 한국 소설계의 거장으로 활약했던 이문열 소설가와 이정준 소설가 중, 이정준을 더 좋아했다. 그의 소설이 더 지면에 가까웠다. 영화는 치매에 걸린 노모의 장례식에 모여 벌어지는, 가족들의 갈등과 장례의 의미



영화 '축제' 포스터.

‘백석(白石)이요’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이 입으로 향하면서 계속 외쳐진다.

‘천석(千石)이요’

‘만석(萬石)이요’

나는 꿈 속에서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어미의 입 속에, 작은 손가락으로 쌀을 넣어드린다. 갑자기 어미가 쌀을 삼킨다. 어미는 지난 몇 주 동안 음식물의 연하가 불가능하여 수액과 영양제로 버티고 있었다. 두번째 손가락의 쌀도 어미가 또다시 삼킨다. 세번째도 네번째도. 그리고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돌아가신 어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상호야 배가 고프다’

평생 자식을 위해 맛난 것 양보하신 내 어미다. 언제나 아이들 벌린 입과 마른 몸을 바라보며, 스스로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식욕을 참아내셨다. 당신의 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후, 게으르고 멧쩍은 허기를 느끼시는 게다. 내 어미 뒤늦은 식욕에 쌀을 삼키고 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어미를 위해 맛난 음식을 사드린 것이 오래전 미국에서 함께했던 때다. 10년이 훨씬 넘은 과거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꿈만 같던 시간을 보낸 것이 2010년이였다. 아내의 대수술 후, 하나뿐인 며느리 챙기시려 2012년에 늙으신 몸을 이끄시고 다시 미국에 오셨다. 어머니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수술과 요양 후 휠체어에 앉아 계시어야만 했다. 이후 달려드는 치매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셨다.

한국에 도착한 날은 삼일장의 이튿날 새벽이었다. 비행기가 지면에 내리자마자 전화를 켜다. 내가 도착한 날을 삼일장의 첫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튿날로 할 것인지를, 수북이 쌓인 문자로 확인한다. 가능한 어머니와의 시간을 오래 가지기 위해, 삼일장의 시작을 내가 도착한 날부터 하자고 했던, 나의 이기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누나들과 여동생은 상주이자 외아들인 나의 요청을 받아들인 지 오래다. 하지만 장례식 일정의 모든 것은 어

머님의 절실한 신앙심에 기초하여 정해졌다. 제일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장례미사가 가능한 일정이었다. 삼일장을 사일장으로 늘리면 장례미사의 날짜가 일반미사가 열리는 일요일로 바뀌게 된다. 일요일에는 장례미사가 열리지 못한다. 우리 형제는 어미가 돌아가신 날을 원래대로 삼일장의 첫날로 정했다. 어머니와의 시간을 하루라도 더 늘리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슬픔을 가슴 속에 더 오랫동안 묻어야 하는 형벌이 됐을 것이다. 게다가 나의 어미는 차가운 안치실에서 하루 이틀을 더 추웠을 것이다.

검은 양복을 빌려 입고 상주와 장손이 절을 올린다. 환하게 웃는 어미의 얼굴이 봄날의 햇살처럼 너무 화사하다. 한번도 보지 못한 어미의 사진이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질 않는다. 내 어미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듯, 애써 바닥 위로 발을 어긋거리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성당 교우들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또다른 얼굴의 연도(煉禱)가 이어진다. 나의 어머니도 쓰러지기 전까지 저들처럼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돌아가신 신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연도의 뒷줄에 섰다고 하셨다. 말씀이 적고 조용한 나의 어머니는 언제나 모임의 뒤에 선다. 경북여고와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나의 어미는 끝없이 평생 뒤따르던 고생을 묵묵히 받아내고 삼키셨다. 본성도 양전한 사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모진 바람에 말수가 말라 버리셨다. 단지 무겁고 환하게 웃으신다.

연도를 하시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나를 손짓으로 부른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다. <자녀의 기도>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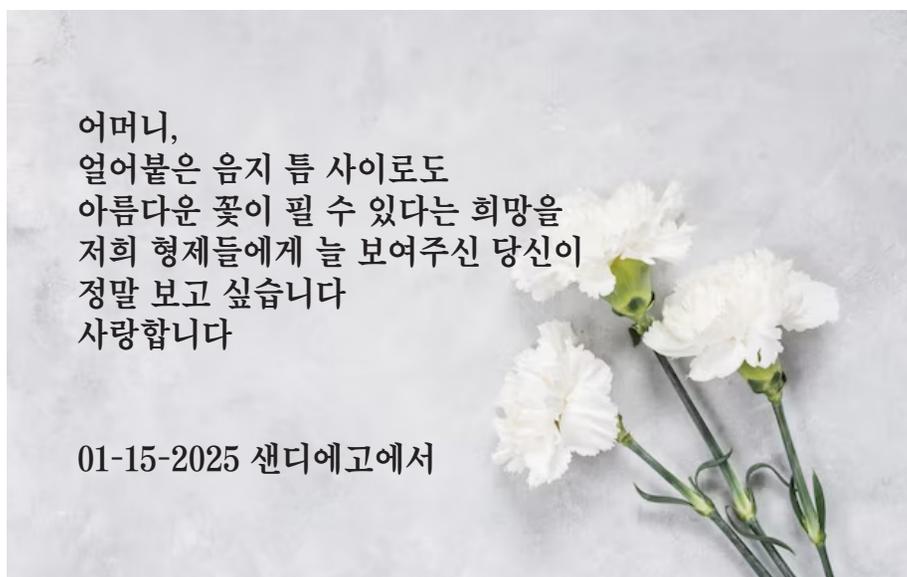
‘인자하신 주님, 저희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 읽고 다음 줄을 읽으려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멍멍하여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진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한다. 눈물을 삼키고 울먹이며 다시 읽어 나간다.

‘저희가 어머니께 저지른 불효를 뉘우치며 간절히 청하오니, 이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소서.’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떠났다고 남들에게 말하곤 했다. 마음 속에 언제든 도망갈 핑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외아들인 나는, 분명 부모를 버리고 왔음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03년 미국으로 건너온 NYU 치대 첫 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외아들에게 송두리째 버려진 나의 어머니는, 홀로 길고 긴 외로움과 그리움을 온전히 자신의 몸 하나로 받아내야만 했다.

어미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치대동기가 보낸 문자를 잠시 빌려온다.



‘상호야, 이민 와서 살면 모두가 불효자다. 돌아가시고 나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못 뵈는 것이 한스럽다. 어머니 멀리 보내느라 고생했다. 날마다 깊어지는 슬픔 잘 다스리길 바란다.’

<축제>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두번째 장면을 이야기할 시간이다. 주인공 화자는 소설가다. 그의 딸에게 할머니의 치매과정을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할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이 잘 클 수 있게, 자신의 나이와 지혜를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몸은 왜소해지고 정신 연령도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영화 속의 할머니는 젓병을 물고 있는 아기로 변화한다.

삼일장의 둘째 날 오후이지만, 새벽에 도착하여 문상객들을 받은 연유로 아직도 몸이 무겁다. 큰누나의 손짓에 따라 입관(入棺)의 차례에 선다. 아버의 주검을 오래 전 보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한다. 불효자인 외아들이 어찌 어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까! 조심스레 들어선 작은 공간에 내 어미 관 속에 누워 계신다. 얼굴은 너무도 예쁘게 화장되어 살아 계신 듯하다. 가족들 둥그렇게 관을 에워싸고 어미를 바라본다. 사망에서 울음이 쏟아진다. 내 어미 얼굴만 보이고 수의에 쌓여 있는데, 고치에서 부화하지 못한 예쁜 나비 같으시다. 고생만 하시다 평생 바닥을 기며, 한번도 하늘로 솟구치지 못한 내 어미, 지금 좁고 좁은 관 속에 누워 계신다. 자식들과 손주들은 모두 그녀가 살아 계신 동안, 그녀의 몸 속으로 뿌리를 내려, 끝도 없는 사랑을 받아 마셨다. 그래서 울 엄마 저리 작아 지시고 메마르시다. 형제들 모두 어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이제는 차갑게 식은 어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관뚜껑이 무섭게 닫히고 어미의 몸, 어둠 속에 갇히신다. 관 덮개 위에 어머니께 남기고 싶은 글을 상주가 대표로 짧게 쓰라고 한다. 나는 천천히 써 내려 간다.

‘당신의 자식이었음이 행복했습니다’ 삼일장의 첫날 밤은 큰 누님의 아들인 장조카가 장례식장을 지켰다. 둘째 날은 나와 아들이 머물기로 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양복 바지와 와이셔츠 넥

타이드도 그대로인 채, 깊은 잠이 들고 말았다. 조문객을 맞이하던 어머니의 영정 옆, 작은 골방 펼쳐진 긴 의자에 누워, 삶과 죽음 사이를 뒤적이다.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새벽 3시에 깨고 말았다.

삼일장의 마지막 날이다. 어머니의 장례미사를 준비한다. 큰 누님이 내게 와서 물어본다. 미사 전에 신부님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고백성사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3명을 등록했다고 한다. 당연히 외아들인 나를 포함시켰다. 냉담의 기간이 20년이 넘는 상주를, 신앙의 세계로 떠밀어대는 누님이 안스러워 그러마 하고 승낙을 한다. 고백성사를 해야 성찬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 신앙심이 돈독한 가족으로 비출 것이다. 하지만 남에게 보이려는 내 자신이 창피하고 가증스럽다. 다시 누님에게 거절의 말을 건네고 머뭇거리다. 내 어미의 살아 생전 꿈이 아들의 신앙심이 다시 일어나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오래전 미국에 오셨을 적, 내 차백미러에도 묵주 목걸이를 달아 주셨었다. 커브길에 들어서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동차의 속도감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듯 몸을 흔들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뻘뻘한 신자가 되어 보자고 생각을 바꾼다. 누님이 속으로 반가워하는 것이 보인다. 신부님은 외국분이라고 하셨다. 며칠 전 중환자실에 찾아와 종부성사(終傳聖事)를 행하신 분이 신부님이라고 하셨다.

신부님의 아버님은 이태리 시칠리아계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분이라 한국어가 자연스럽다고 하셨다. 작은 누님은 이신부님의 각론이 좋아, 자신의 동네에서 먼 이곳까지 와서 미사를 본다고 했다. 왜소한 키에 동그란 안경 속으로 깊은 눈을 가진 신부님이, 저벅저벅 걸어와 고백성사실로 들어 가신다. 바빠 인터넷에서 고백성사 절차를 검색한다. 누님의 뒤를 이어 고해소에 들어선다. 신부님의 목소리에 맞추어 성호를 긋고 떨리는 입으로 말을 더듬는다.

“마지막으로 고해 성사를 본 것이 20년이 지난 듯 합니다.” 그리고 입을 뗄 수가 없다. 태산처럼

쌓인 죄의 무게 속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첫번째 죄는 어머니를 멀리 떠나, 그녀에게 늘 그리워하는 삶을 강요한 것이었어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일 것이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구석으로 몰아세운 적 없기에, 사람과의 인연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우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고집이지 상대적 진실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선량하게 삶을 보낸 선인(善人)도,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잔인한 문구가 떠오른다. 갑자기 입 밖으로 의도하지 못한 말이 튀어 나온다.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고백성사에서, 똑 같은 고백을 머리를 곤개 치켜들고 했었다. 20여년이 지나도 대나무처럼 어리석은 아집과 오만이 줄기차다. 불효자로 돌아와 돌아가신 어미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오늘 고백성사를 본다고 말씀드린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신부님 말을 꺼내신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형제님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어머니는 지금 보이시죠? 그곳에서 서서히 발을 떼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던 다음 말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관 속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 대한 송구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신의 존재를 입밖으로 꺼내기 전에, 어머니를 버린 외아들의 죄를 고해야 했다. 끝없이 눈물이 떨어진다.

“보석은 어머니를 잘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례미사가 끝나고, 화장터를 지나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모셔졌다. 20여년 전에 홀로 모셔진 아버의 유골함은, 너른 유리창문을 통해 빛이 잘드는 부부 납골당으로 옮겨졌다. 두 분의 연애 시절 사진이 유골함 앞에 선다. 둘의 표정이 하도 밝고 맑아, 유골함이 들쭉거리는 듯하다.

장례식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삼일 후 삼우미사가 성당에서 행해졌다. 생미사와 연미사가 다같이 행해지는 날이다. 미사는 한국 보좌신부님이 집전하신다. 신부님은 삼우미사에 참석한 우리 가족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따로 주신다. 이것으로 장례의 모든 일정은 끝났다. 누님들과 여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50일 미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미사가 끝나고 큰누님이 나를 위해 성물(聖物)을 사주려고 한다. 자동차 앞 선반에 붙일 작은 성인상을 고른다. 그리고 성물 축성을 위해 이태리 신부님에게 간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축성을 받는다. 신부님의 눈이 여전히 깊다. 새해의 첫 날 어두운 새벽에 인천 공항으로 향한다. 붉은 해가 겨울 어두움을 뚫고 죽음에서 일어난다.

# 북위 49도는 어떻게 미국-캐나다 국경선이 되었나

## 이회백 동문이 들려주는 국경선 이야기

동북지역(지금의 퀘벡)을 차지하고 있던 불란서가 북미대륙(동북지역에만 국한되지만)을 어디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하던 때 부터 시작된다. 그러던 중 영국 이권을 대표하던 Hudson's Bay 회사가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1719년에는 영-불 위원회(Anglo-French Commission)의 영국측이 정식으로 북위 49도선을 Hudson's Bay 회사의 남방한계선으로 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38선의 3에다 1을 더하면 4요, 8에다 1을 더하면 9가 되니 38선과 49도선, 기이한 인연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훗날 이 북위 49도선이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이 되고 만다.



이회백  
(의대 61·시애틀)



북위 49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룬다.

은 영국이 기대했던 로자리오 해협이 아닌 하로 해협을 경계선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 Point Roberts 불편한 부속물

1846년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선을 북위 49도선으로 조약을 맺을 때는 이 49도선이 실제

독립전쟁 후 Hudson's Bay 회사 영토와 함께 불란서가 차지하고 있던 북방 영토도 영국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미국도 동조해 1783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이 맺어지는데 이 조약으로 Maine과 New Brunswick의 경계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미네소타 북쪽에 위치한 Lake of Woods로부터 서쪽으로 미주리 강까지 경계를 짓자는 제안이 나왔다.

영국이 불란서와 국경교섭을 할때 49도선을 제안했었는데 세월이 지나 이때는 미국이 이를 제안하고 영국이 수락해 1818년 10월 미국과 영국이 49도선 국경선을 로키산맥까지 정하는 조약을 맺었다. 로키산맥에서 서쪽으로는 영미 공동 점령지역으로 하고 영국과 미국 시민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지역이 소위 Oregon Country로 불리게 된다. 5대호를 국경으로 삼는 데는 미국도 영국도 이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 Oregon Country(후에 Oregon Territory 로 불리게 됨)를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영국의 Sir John Pelly는 1825년에 제안하기를 49도선 Rocky 산맥 능선을 타고 남하 Lewis and Clark가 넘는 선을 지나 Snake River 를 거쳐 Columbia 강을 따라 태평양에 들어가는 지역을 경계로 삼자고 제안했다.

미국측이 이 제안에 찬성함이 없이 12년이 지나자 영국 외상 Lord Aberdeen 은 다시 비슷한 제안을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일축했다. 영국에 비해 소유권 근거가 약한 미국은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약점을 메우려고 했다. 미국 정부는 부부가 정착하는 경우엔 640 에이커(1평방마일), 독신인 경우엔 320 에이커의 소유권(title)을 주었는데 후에 걸잡을수 없게 되자 반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착자(settler)들은 주로 비옥한 Columbia 강 남쪽 Willamette Valley에만 몰리고 북쪽, 지금의 워싱턴주나 아이다호 쪽으로 정착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1845년 팽창주의자인 James Knox

Polk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를 지명한 1844년 전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채택됐다. "영토 전역(Oregon Country)에 대한 우리들의 권리는 명명백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단 한치의 땅도 영국 또는 다른 어떤 세력에게도 양보할수 없다."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 슬로건이 되었다.

그러나 Polk는 사실 오리건을 두고 영국과 전쟁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만간 캘리포니아를 놓고 멕시코와 전쟁하게 되리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동시에 두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외상 Lord Aberdeen은 전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미국의 의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전쟁을 할 경우 긴 보급로를 지탱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Aberdeen은 미국이 요구하는 54도 40분에 대한 타협안으로 49도선에서 Columbia 강을 만나 거기서 강을 따라가는 선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미국에게 자기 영토내에 있는 항구를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약속까지 덤으로 내놓았다. 미국은 대안으로 콜롬비아 강을 따라 갈 것없이 49도선에서 곧장 태평양 연안까지 나가 밴쿠버 섬까지 49도 선에서 가르자고 제안했다.

밴쿠버 섬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일념과 Hudson's Bay 회사의 Victoria 요새가 이미 밴쿠버 섬에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Lord Aberdeen은 49도선을 국제경계선으로 하되 밴쿠버 섬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Polk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고 이 제안을 상원에 제출, 1846년 6월 15일에 인준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해양경계선은 "해협(channel)의 중간"을 따른다는 조문(clause)이 있었는데 조지아 해협에 있는 여러 수로 중 어떤 수로를 의미하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해양 경계선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 1872년에 가서야 종말이 나게 되었다.

### 산 후안섬 경계 분쟁과 Pig war

조지아 해협(Strait of Georgia)과 후안 데 푸카 해협(Strait of Juan de Fuca)이 만나는 곳에 자리잡은 산 후안섬(San Juan Islands)은 미국과 캐나다가 대륙 국경을 정하는 마지막 장면이 벌어진 곳이다.

San Juan Islands는 San Juan Island, Orcas Island, Lopez Island, 기타 작은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데 밴쿠버 섬과는 하로 해협(Haro Strait), 대륙 본토와는 로자리오 해협(Rosario Strait)으로 갈라져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공동국경조사대가 결성되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경계선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소유권에 대한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1859년 6월 오하이오에서 온 미국 정착자 Lyman Cutler는 Hudson's Bay 회사 소유의 돼지가 자기 감자밭을 파헤치는데 화가 나서 돼지를 쏘아 죽였다.

이에 대해 Hudson's Bay 회사는 배상금 100불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고 사태가 점차 험악해지자 미국측 오리건군 사령관 W.S. Harney는 군대를 산 후안 섬에 상륙시켰다.

미국측에 대응해 영국 밴쿠버 지사 James Douglas는 군함 두척과 해병대 그리고 공병대를 상륙시켰다. 이로 인한 서로의 대치는 소위 "Pig War"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미국 정부는 Harney의 처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Winfield Scott 장군을 보내 문제해결을 맡겼다.

그와 Douglas는 우선 이 섬을 미영공동으로 점령하자는데 합의해 북쪽에는 영국 캠프, 남쪽에는 미국 캠프를 1860년부터 1872년까지 두게 되었다.

1872년에 양측은 중재를 함으로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자는데 합의, 중재자로 독일 황제 Wilhelm I세를 정했다. 빅토리아 여왕이 Wilhelm 황제의 사촌이 라는데 영국이 기대를 걸었다면 그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카이저 Wilhelm

로 어디로 통과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서둘러 맺어졌었다.

그런데 일단 이 조약대로 측량을 해본즉 아주 자그마한 반도가 미국 본토와 떨어져 캐나다를 거치지 않고는 갈수 없는 땅이라는게 판명되었다. 이 땅이 미국 본토 맨 서쪽에 있는 Point Roberts인데 영국측은 이 땅을 다른 영국 영토로 바꿔치기 하는게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미국이 거절, 지금도 이 "귀찮은 땅"이 미국령이 되어 있다.

그 결과 그곳에 사는 미국인들은 모든 것(식료품,가스, 전기 등)을 British Columbia에 의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본토인 Blaine에 있는 학교에 매일 통학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매일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에 입국,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엔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버스로 45분, 왕복에 한시간 반을 버스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는 Point Roberts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어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San Juan Islands에 관한 잡소리를 하나 보태면 조약상(그리고 지도상) 미국 영해와 영국(아니, 캐나다) 영해가 정해져 있지만 수로에 말뚝을 박은 것도 아니라 자기 배가 미국 영해에 있는지 캐나다 영해에 있는지 알수 없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래 구경관광선이 많은데 고래가 이 국제 수로 경계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10년, 20년 아무 문제없이 관광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쫓아와서 캐나다 배가 입국허가없이 미국영해에 들어왔다는 등 구비서류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바람에 고래구경왔던 사람(그중 한 사람은 독일에서 온)들은 고래구경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민관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는 기사와 사진이 이곳 신문을 장식했었다. 다행히 "불법"입국한 고래는 무사했다지만.



김학천  
(치대 71)

## 엘살바도르로 ‘죄수 수출?’

전쟁 최전선에서 소모적 전력으로 소위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죄수부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기원 전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할 때다. 오나라에 비해 열세에 있던 월나라 왕의 책사 범려는 비장의 수단으로 60여명의 사형수들을 내세워 가족에 후한 보상을 약속하고 오나라 군대 앞에서 한 명씩 목숨을 끊도록 했다. 이에 놀란 오나라군의 진중은 술렁대며 흐트러지는 분위기가 됐고 월나라는 사기가 충천해지면서 기습공격으로 적군을 궤멸시키고 달아나는 오나라 왕까지 숨지게 했다.

이에 그 아들은 절치부심 복수의 일념 끝에 얼마 후 오나라를 무릎꿇리자 이번엔 반대로 포로가 된 월나라 왕 구천 또한 복수

로 가는 고난의 길을 걷는 데서 고사성어 ‘와신상담’이 나왔다.

후에 전국시대를 거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한 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병력이 부족해진 진나라도 죄수부대를 이용했다. 반란군을 토벌하면 죄를 사면하고 고향으로 돌려준다는 말에 죄수부대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해 반란군을 진압했지만 약속과 달리 모두 생매장당했다고 한다.

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죄수부대 사례는 2차대전 중 독-소전쟁 때 스탈린의 지시로 만들어진 소련군의 ‘슈트라프바트’다.

죄수 병사에게는 소총 한 정과 최소한의 탄약만 지급하고 최일선에서 돌격하게 했다. 머뭇거리거나 물러서는 이들에게는 뒤에서 감시하는 감독부대 독전관이 기관총을 발사했기에 후퇴할 수도 없었다. 사면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다.

근래에 와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의 그림자 부대’라 불렸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보너스와 사면을 미끼로 살인범 중심의 죄수 용병대를 모집했다. 하지만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제거되고 러시아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자 이

틈을 북한이 파고들기도 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죄수를 이용한 사례는 비일비재하지만 꼭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죄수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

18세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은 들끓는 범죄자로 골머리를 앓게 되자 식민지 미국에 해마다 1,000여명의 죄수를 보냈다. 일종의 유배지였다. 그러다가 미국이 독립하자 그 유형지를 호주로 바꿨다. 당시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호주로 보내진 죄수가 약 16만명에 달했을 정도라고 한다.

헌데 지난해 영국 정부가 에스토니아로 죄수를 옮기려 한 것이 밝혀지면서 세상

을 놀라게 했다. 영국은 이미 교도소가 만원인데다가 그 연간 관리비용이 막대해서라고 한다. 이는 죄수 이동으로 영국은 관리비용을 절감해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에스토니아는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 윈윈이라고 해야 할 판이다.

이미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바 있고, 덴마크는 교도소 과밀문제에 처하자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의 교도소 감방 300실을 10년간 임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헌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죄수 수출에 큰 매력을 느낀 모양이다.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죄수부대가 잔혹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독재 국가의 시그니처 범죄이듯 죄수 수출이 수감자의 재활기회를 박탈하고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밥 딜런의 ‘거듭 난’ 세상

오래전 팝송 전문 잡지사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다. 출입처가 없는 내근 기자가 부수입을 올리기에 딱 맞았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어서 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 등에서 기사를 골라 번역을 했다.

밥 딜런(사진)도 그때 알았다. 그의 ‘더 프리휠링 밥 딜런(The Freewheeling Bob Dylan)’이 팝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앨범이란 사실도. 불후의 명곡 ‘블로잉 인 더 윈드’도 이 음반에 수록돼 있다. 노래들도 앨범 제목대로 자유분방해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세상의 모순을 거침없는 풍자로 비판한 밥 딜런. 그런데 앨범의 커버 사진은 로맨틱하기 그지없어 의아스럽다. 배경은 한겨울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 예술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어 요즘 말로 ‘힙’한 곳이다. 앓던 얼굴의 딜런은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고 한 여인이 딜런의 팔짱을 짚고 미소를 흘려보내는 사진이다.

여인의 이름은 수지 로틀로. 갓 스물둘을 넘긴 딜런에 저항과 반문화의 거친 숨결을 불어 넣어 준 장본인이다. 그녀

가 딜런과 함께한 세월은 4년 남짓. 그리고는 홀연히 그의 곁을 떠난다. 그를 ‘독점’ 하면 천재의 예술혼에 흠집을 남길까 두렵다는 말을 남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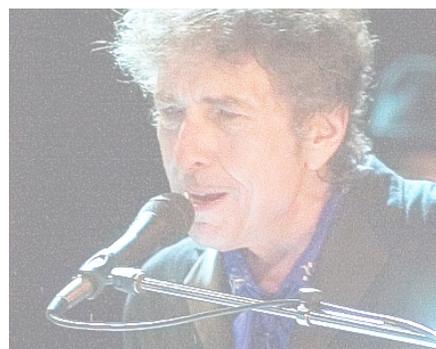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꼽으라면 단연 ‘더 프리휠링~’일 터. 이 앨범에 수록된 노랫말은 거의 모두 로틀로의 감수를 받았다. 최소한 상금만큼은 절반씩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로틀로는 이미 15년 전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라.

로틀로는 출신이 ‘레드 다이어퍼 베이비(red diaper baby)’다. ‘붉은 기저귀’를 차고 태어났다고 할까. 급진 좌파 또는 공산당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말하자면 골수분자를 일컫는 조어다.

당시 ‘붉은 기저귀’의 슬로건이 ‘사람 위에 사람 없다’였다니 이들이 누구인가를 짐작할 만하겠다. 그래서 로틀로는 이층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 온다. 연방수사국(FBI) 기록에 따르면 딜런도 ‘붉은 기저귀’에 속한다.

그런 딜런이 10여년 전 생애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

랐다.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지나 가야 평화가 찾아올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다네.” 반세기 전 ‘블로잉 인 더 윈드’를 부르며 반전



운동에 앞장섰던 딜런, 그 현장을 찾았으니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콘서트는 호찌민(옛 사이공)시에서 열렸다. 공연장 규모는 7천석. 어찌 된 영문인지 티켓이 절반도 팔리지 않았다. 그나마 현지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표를 사줬길래 망정이지 자칫 망신당할 뻔했다. 베트남 팬이라 봤자 대부분 60~70대.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처음엔 민주화 소요를 우려해 베트남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천만에. 영국의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딜런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드물어 표가 안 팔렸다. 대부분 자기네 나라가 미국과 전쟁을 치렀는지도 모르는데 딜런이 누구인지 알 턱이 있을까. 알고 보면 작금의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친미적이다. 전 세계 미국대사관 가운데 경비가 필요 없는 유일한 곳이 베트남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보면 딜런의 또 다른 히트곡 ‘시대는 변하고 있으니’(The Times They Are A Changing)의 세상이 온 듯한 느낌이다. 공산 베트남이 미국의 우방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가수가 노벨상을 받는 세상은 또 어떨고. 그 뿐 아니다. 유대계 무신론자인 딜런이 “예수가 (삶의) 답이다”며 ‘본어게인’ 크리스천을 선언하고.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각을 지니면 세상이 바뀐다. 시대는 변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AI)이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밥 딜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문리대 66)

# 3700여 서울대 신입생들 “무척 설레요”

## 2월 연례 새내기대학 개최 수강신청·시설 이용 등 안내

“신입생이세요? 환영합니다! 와~”

하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재학생 열댓 명이 25학번 새내기가 눈에 띄자 함성을 질렀다. 체육관 입구에 깔린 붉은 카펫 양옆에 줄지어 서서 ‘새내기대학’ 행사장에 들어서서는 후배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다. 신입생들의 얼굴은 좀 어색해하면서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떠있었다. 새내기대학은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교 연례행사. 서울대인이 되어 서울대와 나누는 첫인사인 셈이다.

올해 새내기대학은 2월 3일(월), 2월 6일(목), 2월 11일(화), 2월 13일(목)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차당 750명씩 총 3000명의 신입생이 참가했다. 첫째 날엔 유홍림(정치80-84) 총장이, 둘째 날엔 이준정(고고미술사83-87) 교육부총장이 단상에 올라 학교를 대표해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 부총장은 “재학생 선배의 격한 환영 인사를 받는 여러분들이 무척 부러웠다. 서울대에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신입생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입학 40주년을 맞은 재작년부터 졸업 후 흩어진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된 말로 쫓아왔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웃었다고. 이심전심이었는지 행사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부총장은 자신의 전공과 연관 지어, 인류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뇌가 커진 이유는 사회성에 있다고 짚었다. 모교 합격으로 수월성을 입증한 신입생들에게 협동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수한 모교 교수진과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자랑하며 대학 생활의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이어서 작년에 갓 졸업한 이민호(경영 17-24) 로맨시브 전략 총괄이 “다른 졸업생들보다 뛰어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정말 다채로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단상에 올랐다. 네이버에서 자신을 검색하면 ‘댄서’라고 소개될 만큼 어렸을 때부터 춤을 쳤고, 먹는 걸 좋아해서 서울대 인근 맛집 탐방기를 담은 인스타그램 계정 ‘스누푸파’를 운영했다고.

이 동문은 “재미를 찾아 꾸준히 계속한 결과, 아이돌그룹 ‘더 보이즈’의 백댄서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방송 촬영도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성장했다. 코로나



2월 3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첫 새내기대학 때 하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재학생 멘토가 신입생 멘티들을 인솔해 서울대 정문 조형물 아래로 통과하는 세리머니를 했다.

19 팬데믹 팬 경영난에 처한 사료수길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식당을 선별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작게나마 지원금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받았던 감사 문자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자신이 누군가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부담이 되면서도 뿌듯했다고 덧붙였다.

“제가 사랑하는 사료수길이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을 땐 근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선후배 동기들이 함께해 주셨죠. 학교 밖에서도 좋게 봐주셔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고요. 나아가 직접 수거하는 건 일시적일 뿐이란 생각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서명 운동을 전개, 이를 계기로 불법 전단지 업주들이 실제로 체포되기까지 하니 4주 만에 깨끗한 거리를 되찾았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춤과 식탐이란 제 성향을 좇

아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처럼요. 해보고 아닌 거 같으면 그냥 바꾸면 돼요.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동문은 막간을 이용해 짧은 춤을 선보이고 내려갔다. 이어서 고희정(영어교육94-98) 교육부처장이 학부대학 및 공통 교육과정을 소개한 후 수강 신청 요령에 대해 설명했고, 최지송(작곡12-17) 교수가 모교 거주형 대학 즉 ‘LnL(Living & Learning)’을 소개했다. LnL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전인적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 10월 설립됐다.

2023년 1기, 2024년 2기에 이어 올해 3기를 맞고 있다. LnL에선 올해로 2년째 다양한 전공과 출신 지역 학생들이 어울리는 인적 물적 환경을 조성, 주거와 배움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LnL 학생은 410명, 멘토는 70명이며 대학원의 조교 같은 프록터가 10명 있다. 모교 기

숙사 906동과 919D동에 거주하면서 공동체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비교과 활동으로 다양한 단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해외 대학생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멘토링 세션과 팀 파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오후 일정을 통해 신입생들은 동기 및 선후배들과 밀도 있는 소통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화학생물공학부 신입생 송 울 씨는 “막막하면서도 무척 설렌다. 선배들이 많이 도와줄 것 같아 기대도 되고 믿음직스럽다”고 말했다고, 컴퓨터공학부 김민관 씨는 “동기들과 어서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일단 해 보라, 취미가 경험이고 스펙이 된다는 조언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이지원 씨는 “밴드부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나경태 기자**

## 정시 합격생 57%가 재수 이상

### 삼수 이상 21% 달해

2025학년도 모교 정시모집 합격생 가운데 21%는 삼수 이상 수험생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월 7일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수 이상 합격생이 전체 정시 합

격자 1570명 가운데 330명으로 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3 재학생 합격자는 633명(40.3%), 재수생 합격자는 571명(36.4%)이었다. 삼수 이상 합격자 비율은 2016학년도 89명(9.6%)에서 2020학년도 134명(15.5%), 2024학년도 298명(19.3%)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출신 학교별로 보면 일반고 합격생 비

율은 63.6%로 전년도 63.8%와 거의 비슷했고 특목·자사고 전체 합격생 비율도 27.5%로 전년도 27.6%와 거의 같았다. 외국어고 출신 합격자는 3.7%에서 3.8%로, 영재고는 2.3%에서 3.1%로, 국제고는 0.6%에서 1.0%로 소폭 상승했다. 과학고 출신 합격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4%였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뉴욕 - 조상근 (법대 69)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 골드이사 (\$10,000이상)

워싱턴주 - 故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흥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흥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종률 (사대 5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홍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욱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휘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02,303  
(12/31/24 까지)

###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 65)  
진성호 (공대 64)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 하트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Table listing general donors and amounts for various states including 남가주, 뉴욕, 뉴잉글랜드, 네바다, 미시간, 북가주, 샌디에고.

Table listing donors for California (캘리포니아), Texas (텍사스), Florida (플로리다), Hawaii (하와이), and Utah (유타).

Table listing donors for Washington (워싱턴), Oregon (오레곤), and Washington DC (워싱턴 DC).

Table listing SNUAA Scholar Program donors, including 본국 서울대학교 and various state chapters like 남가주, 미시간, 하트랜드, 시카고, 광고후원금, 인명록비, 모교발전기금.

Table listing donors for Oregon (오레곤),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Brain Network, New York (뉴욕), Minnesota (미네소타), Chicago (시카고), Washington DC (워싱턴 DC),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나눔기금(Charity Fund), 제 33차 평의원 회비.

Table listing donors from various states including Washington (수 62), New York (뉴욕), New England (뉴잉글랜드), Rockville (록키마운틴스), Chicago (시카고), Washington DC (워싱턴 DC), Georgia (조지아), Michigan (미시간), California (캘리포니아), Washington DC (워싱턴 DC), Minnesota (미네소타),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New York (뉴욕), and Hartland (하트랜드).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Form for membership and donation options: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Form for general and website advertising: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Total: \$,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Form for donor information: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b>AAMKO Consulting Co.</b>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JUN CHANG CPA &amp; Accounting Corp.</b>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b>STANLEY Cha, CPA</b>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Kenneth G. Yum, CPA</b>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b>기계 / 기술 / 전자</b>	
<b>Link TV Media</b>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Turbo Air, Inc.</b>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b>Tayco Engineering, Inc.</b>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www.taycoeng.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북창동 순두부</b>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b>의료 / 병원</b>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b>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b>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Beverly Cardiology Group</b>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b>Choi Gilbert Pharmacy</b>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의료 / 치과</b>	
<b>황준오 DDS</b>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기타</b>	
<b>작가의 집</b>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b>ACCU Construction, Inc.</b>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뉴욕   NY·NJ</b>	
<b>공인회계사</b>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Law Offices E. PETER SHIN</b>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b>금융</b>	
<b>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b>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b>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b>박중호 소아과</b>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김치갑 통증병원</b>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박범렬 소아과</b>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윤세웅 비뇨기과</b>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b>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워싱턴 DC   MD·VA·MN</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EVS, Inc.</b>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b>Fairway Asset Corporation</b>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b>Wealthy &amp; Wise Family Office</b>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b>Archipelago Construction LLC</b>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b>Abbott Animal Hospital</b>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b>THA Consulting, Inc</b>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b>Flonomix Inc.</b>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b>UNIFAITH Co</b>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b>URI</b>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 BLUE BELL FAMILY DENTISTRY

*Cosmetic Dentists,  
General Dentistry,  
Endodontists*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제17대 미주동창회

###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 차기회장 황호숙(사)

### 명예회장 노명호(공)

###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지),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 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택택(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T: (714)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 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hok@gmail.com

###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866-8312  
chris.van.bc@gmail.com

###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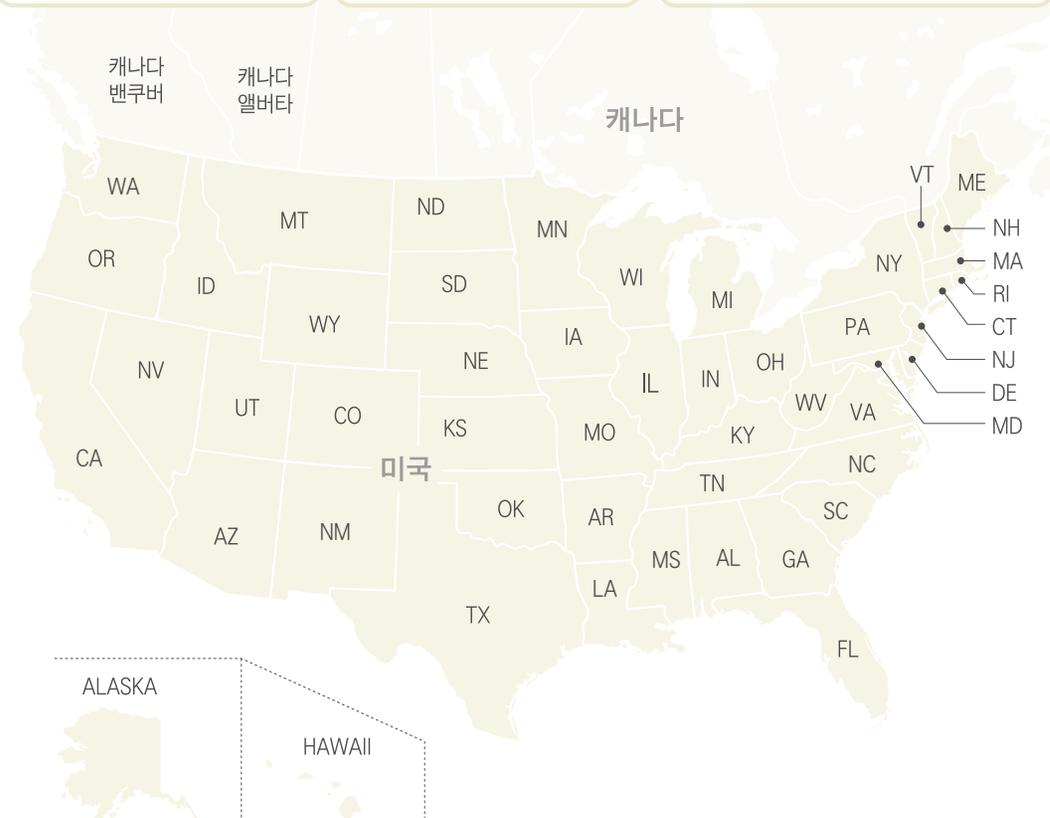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http://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오경호 (수의대 60)

**Abbott Animal Hospital**

- Sick Pet visits and Urgent care
- Chronic Disease Management
- Boarding & Walks on our Nature Trails
- Routine Surgery
- International Health Certificates
- Humane Euthanasia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W. [abbottanimal.com](http://abbottanimal.com) | T. (770) 921-2121 | E. [info@abbottanimal.com](mailto:info@abbottanimal.com)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A Top-Tier Research University**

**CARNEGIE CLASSIFICATION R1 TOP-TIER RESEARCH UNIVERSITY**

**K. Wayne Lee** (이강원 공대66) Professor |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el. 401.874.2695 | Fax. 401.874.2786 | Email. [leekw@uri.edu](mailto:leekw@uri.edu)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

[www.evs-eng.com](http://www.evs-eng.com)